

헌법 재판소 왜 이래?

막가파 탄핵재판...공정·신뢰 짓밟아

사법부가 위기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금처럼 땅바닥에 떨어진 적은 일찍이 없었다. 따지고 보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법치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이고, 법치주의가 무너진 것은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썩었기 때문이다. 법을 어겨도 사법부가 제대로 응징하지 않으니 너도나도 법을 안 지키다. 하긴 사법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더러 지키라 말라 하겠는가.

사법부의 위법·탈법·무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판사가 뇌물 받고 판결 뒤집는 구태는 사라졌겠지만 이념에 찌든 편향 판결은 사법부의 존립 근거를 뿌리째 흔드는 독버섯이다. '소극적 거짓'이란 희한한 논리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면죄부를 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판사 쇼핑'에다가 헌정 초유의 헌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번이나 발부한 법원은 전혀 공정하지 않다. 편향 판결에 따른 비난을 피하려고 재판을 질질끄는 늑장 판결도 허다하다. 진작 철창에 갇혔어야 할 이재명 더 불어민주당 대표 재판들이 바로 그런 좋은 예다.<관련기사 3면>

작금의 사법부 위기는 헌법재판소가 진앙지이다. 현재는 이른바 '87년 체제'의 산물로 1988년 출범 이후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통합진보당 해산과 호주제 폐지 사건 등으로 간혹 사회의 이목을 끌긴 했으나 요즘처럼 국가적 대혼돈의 중심에 선 것은 처음이다. 위기는 다른 누구도 아닌 현재가 자초했다. 일련의 탄핵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사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진술하는 윤석열 대통령.

재의결을 거쳐 다시 소추하도록 요구해야 할 현재가 외려 내란죄 배제를 부추겼다니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내란죄가 빠진 소추안이 국회에 재상정됐다면 부결됐을 공산이 크다.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짜장면 시켰는데 단무지만 나왔다"고 조롱하는 등 비난 여론이 거셴지만 현재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리고도 막상 재판에서는 내란죄만 집요하게 파고든 것은 이만저만한 자가당착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유로 제시한 출탄핵과 입법·예산 폭거 등 거야의 국헌 문란과 부정 선거 의혹은 거들떠도 안 보고 관련 증언·증거 채택 요구는 모조리 기각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이 요구한 3분 발언 기회도 불허하는 등 편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마치 운동경기에서 심판이 한쪽 선수로 뛰는 꼴이다. 오죽하면 헌직 지검장이 헌법재판관들은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을 선

헌법 수호는 커녕 국가 위기의 진앙지

명을 망각하고 불법과 편법과 졸속을 일삼으며 사법부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공정과 신뢰를 스스로 짓밟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달 중순께 최종 판결이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이 대표적 사례다. 일방적이고 급박한 공판준비 기일 지정, 피청구인의 증인 신문참여권 제한, 검찰조서 증거 채택 등 위법·탈법 사항이 굵직굵직한 것만 10개가 넘는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재판 초장부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과의

짬짜미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2차 변론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뺀다며 "그것이 재판부가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속셈은 뻔하다. 탄핵 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조기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다. 이 대표가 사법 처리되기에 앞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철창행을 모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핵심 사유인 내란죄가 빠진 탄핵은 윤 대통령 말마따나 '사기 탄핵'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를 즉각 각하하고

고한 일체 재판관만도 못하다고 비판했겠는가.

현재가 국회 측 요구로 검찰조서를 받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수사·재판 중인 사건 서류의 송부·촉탁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원본이 아닌 등본은 괜찮다"는 황당한 변명에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광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증인들이 검찰에서와 달리 진술했는데도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도 언어도단이다.

<2면에 계속>

본회인사

▲主筆 이도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바로 알기
Kjtv 다큐멘터리 주 1회 방영 인기폭발

‘국회 장악’ 민주당과 짬짜미 의혹

<1면에 이어서>

현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례라고 주장했지만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게다가 내란죄의 기폭제나 다른 없는 흥 전 국정원 차장의 정치인 체포 명단과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오염된 정황이 짙은데도 어물쩡 넘어간 현재의 작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서 “의원들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탄핵 재판을 “야당의 내란몰이”로 규정했다. 그런데도 현재는 필적 감정과 관계자 증인 채택, 흥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한 인물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들과의 대질 신문 등 핵심 의혹들을 해소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무엇에 쫓기듯 허둥지둥 심리를 끝냈다. 일국의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판을 이렇게 허점투성으로 진행한 배경에도 민주당과의 짬짜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현재의 고약한 행태는 비단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만이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재판 심리에 앞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 건부터 다른 것은 선입선출 원칙으로 보나 우선 순위로 보나 사안의 관련성으로 보나 온통 뒤죽박죽이다. 취임 이틀 만에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재판을 174일이나 끄는 등 명분도 없는 탄핵 재판들을 마냥 지연시킴으로써 민주당의 졸탄핵에 장단 맞춰 국정 마비에 일조한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원칙도 없고 상식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개정에 앞서 현재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없이 제멋대로 좌충우돌하니 ‘편법재판소’란 비아냥을 듣고 ‘현재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든다’(허영 헌법학자)는 지탄을 받는 것이다.

여느 재판도 그렇지만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헌법재판과 탄핵 재판들을 이념 편향적인 판사들이 좌지우지하는 비정상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헌법재판관 8명 중 중복 좌파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3명이나 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현재 임명 보류 중인 마은혁까지 합세하면 4명이나 된다. 과거 “우리법연구회에서 내가 가장 왼쪽에 있다”고 자부했다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민주당 이 대표의 절친으로 알려졌고,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국회소추단 대표와 같은 로펌 소속이며,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후신) 출신인 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이 민변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인적 구

성이 이런 현재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는 게 애초부터 불가능인지 모른다. 차제에 현재 폐지를 포함한 헌행 체제의 보완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다. 법치주의가 실종되고 폭력이나 독재자가 지배하는 사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고, 그런 나라는 결국 망국의 길로 치닫게 마련이다. 탄핵 정국 와중에 현재와 서울 서부지법 같은 곳에 주사과가 따리를 크게 틀고 있는 사실이 들뜬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이제라도 그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영터리 재판에는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탄핵 소추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20·30세대가 탄핵 반대 시위에 대거 동참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여론의 어마어마한 세 과시가 절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도선** (본지 주필)



‘이승만 바로알기’ 3월 5일 출범식

여의도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대한언론인회가 참여하고 있는 ‘이승만바로알기국민연합’(대표 변정일) 출범식이 3월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개최된다. 출범식에는 자유헌정포럼,

트루스포럼, 한미연합회 등 22개 참여단체 지도자 2백여 명과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내빈으로 참여한다.

출범식 후에는 기념강연회가 열리는데 ▲“제한헌법 전문에 새겨진 대

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이승만과 대일관계, 이승만은 과연 친일파인가?”(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이승만은 남북분단의 책임자인가?”(정안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승만은 독재자인가?”(인보길 뉴데일리 회장) 등이 발표된다.

“국난 극복 위해 미움을 버리자”

대한언론인회 2차 문화포럼 ‘원행스님’ 강론

대한언론인회(회장 장석영)는 지난 2월 6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대화실에서 월정사 원행 대종사를 연사로 ‘대한민국의 국운-원행 대종사에게 듣는다’를 주제로한 제 2차 문화포럼을 개최했다.

원행스님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난에 가까운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올해 을사년의 전망과 미래에 대한 타개책을 나눠보기 위한 담론

의 장에 함께 참여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첫째는 미움을 버리고 두번째 가난을 배우고 세번째는 물질보다 정신을 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언론인회가 주최한 이번 제 2차 문화포럼은 통일국회뉴스와 세계평화뉴스가 주관하고 (사)대한노인회 중앙회(회장 이중근)와 행복만들기 중앙회가 후원했다.

이날 포럼에는 언론계·종교계 등



인사 2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원행대종사는 탄허 대종사 수하에

서 수행한 오대산 월정사 선덕(禪德)이다.

헌재는 진정 ‘좌파의 소굴’ 되려는가?

법원내 ‘하나회’ 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포진

법원 내 좌파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이념지향적 판결이 문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좌파성향 논란이 일파만파로 증폭되고 있다.

지금 헌재 재판관 8명 중 헌법재판소장 권행대행인 문형배와 이미선, 정계선 등 3명(37.5%)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여기에 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마은혁까지 임명된다면 헌재 내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4명으로 늘어나 구성비율이 44.4%가 된다. 우리나라 법관 3000여 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전체의 3%에 달하는 90여명이 포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의 우리법연구회 재판관 비율은 전체 우리법연구회 법관 비율의 12.5배에 달한다.

주목되는 점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강행 수사와 함께 3700여명의 경찰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한 오동운 공수처장, 체포영장을 불법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담당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란 점이다. 윤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 송두환·이광범 변호사, 그리고 광종근 특전사령관을 회유해 민주당측에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고 광사령관을 공익 제보자로 천거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범계 민주당의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도처에서 윤 대통령을 포위, 공격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아니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판에서 탄핵 찬성표를 던진 정정미 재판관도 좌파로 분류돼 지금 헌재 내 좌파성향 법관 비율은 50%가 된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제5공화국 시절 임명된 김용철 대법원장의 연임에 반발해 일어난 ‘제2차 사법과동’을 주도한 광주일고 출신 소장 좌파 판사들이 모여 만든 법원 내 ‘하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



정계선
헌법재판관

회’같은 사조직이다. 여기에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박시환 전 대법관(이상 창립 멤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등이 참여했다. 우리법연구회는 2009년 기준으로 회원 129명을 보유했으나, 2018년 해체되고 지금 남아있는 법관은 90명(3%)선이다.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다 합해도 300명 안팎으로 10%선에 그친다.

그동안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나라의 근본을 흔든 중복주사피들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등 공안사건

동기(18기)로 오랜 술친구이자 노동법연구회에서 함께 일해 온 법원 내 좌파인사다. 그는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 한국에 왔으며 ‘6·25 북침론’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리고, 북한의 지시로 남한 내에 만들어진 지하당조직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징역 20년을 복역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 그리고 마오쩌둥(毛澤東)을 숭상한 친중·종북·반미주의자 리영희의 사상에 공감한다고 했던 사람이다. 온갖 음모론의 가짜뉴스 메이커 김어준과 김제동을 팔로우한 사실이 드러나자 페이스

이 시작돼 수백만 민중이 살해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민노련은 1987년 6월 결성 당시 ‘미국이 5·18 광주사태 때 광주시민 2000명 학살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강령으로 채택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그는 과거 서울남부지법에서 근무할 때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반대하며 국회불법점거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전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재 재판관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와 함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법치’(the rule of law)를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헌재가 위반하고 있는 10여개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 중 대표적인 것을 보면 ▲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과 상의 없이 탄핵심판 변론기일 일괄 지정과 증인 신문 시간 강제제한 및 대통령의 증인 상대 직접신문을 금지한 것(방어

헌법재판소내 좌파성향 법관 비율 50% 법치와 직업윤리-공정성-중립성 상실

과 민노총, 전교조를 포함한 좌파 인사들의 시국관련 사건에 무죄판결을 내리는 등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관은 직업윤리가 헌법에 별도로 규정된 유일한 직종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최고 사법관인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도 않고, 개인의 양심보다는 이념적, 정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스스로를 헌재에서 제일 왼쪽(좌파)에 있는 사람이라고 밝힌 문형배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는 사법연수원

복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이미선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김만배의 더러운 재판거래로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지켜준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이 소속된 로펌에 남편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찬성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동생은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등쳐먹은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계선은 좌파 판사들의 소굴인 서울서부지법원장 재직 중 헌재 재판관이 됐으며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국회측 윤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 근무하면서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시국 선언을 한 장본인이다. 정정미는 인사청문회 때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물음에 일부러 대답을 회피할 정도로 좌편향적이라 지적을 받았다.

한편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핵심 멤버로 활동했던 사회주의 지하혁명조직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은 ‘미국 때문에 6·25전쟁

권 침해) ▲수사나 재판중인 사안은 사건기록 송부를 요청해 사용할 수 없으나 헌재가 이를 송부받아 심리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는 피청구인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는데도 이를 사용하겠다는 점 등이다. 이는 헌재 재판관들이 법치와 직업윤리, 공정성, 중립성을 상실했으며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이념을 가진 자들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좌파의 속성은 거짓과 위선, 조작과 함께 법률위반에 있다. 좌파의 대부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을 혁명으로 성취시킨 레닌은 그의 저서 ‘제국주의론’에서 “공산주의자는 법률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 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된다 (Communists must do examples of law violations, lies, deceptions, and actually cover-ups.)”고 했다. 헌재는 정녕 좌파의 소굴이 되려는가. ☐

서옥식
(본회 부회장,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헌법재판소 현 재판관 8인 체제

재판관	정치성향	출신 연구회	지명자	임기
문형배	진보	우리법연구회	문재인 대통령	2025년 4월
이미선	진보	우리법연구회	문재인 대통령	2025년 4월
김형두	중도	민사판례연구회	김명수 대법원장	2029년 4월
정정미	중도	-	김명수 대법원장	2029년 4월
정형식	보수	-	윤석열 대통령	2029년 12월
김복형	중도 보수	-	조희대 대법원장	2030년 9월
정계선	진보	우리법연구회	더불어민주당	2030년 12월
조한창	보수	-	국민의힘	2030년 12월

이재명 우클릭? 그 가면을 벗긴다

중도 우파인가? 아니면 사이비 사회주의인가?



박석흥
본지 논설위원장
전 문화일보 국장

80년 전 해방공간에서 시작된 '체제전복 전쟁'의 대 결전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중북좌파와 20·30대의 '이념투쟁 내전'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12·3계엄사태'로 정치가 파산한 후 대한민국 헌정과 정체성 수호를 역설하는 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20·30대와 기독교인이 벌인 대규모 항의 집회는 국회·헌재·언론이 연합한 좌편향 대통령 탄핵에 맞선 외침으로 대통령 탄핵 판결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학생과 원로 언론인들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거대 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분열·갈등의 정치로 불안·분노·무력감을 사회에 확산시키고 29회 탄핵소추와 23회 특검발의 등으로 헌정을 마비시켰다고 고발했다. 김성우 전 한국일보 주필은 "(이재명)민주당 대표가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왜 5천 2백만이고 통을 당해야 합니까"라고 사돈 남 말하듯이 했다면서, "서일필(鼠一匹, 쥐 새끼 한마리) 때문에 태산(泰山)이 명동(鳴動)하는구나"라고 개탄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도전에 대응해야 할 시기에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관, 참모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경찰총장이 제자리에 없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조인과 586 중북 좌파 정치인들만이 날뛰고 있다"고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성토가 쏟아졌다. 대학생들의 탄핵반대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20대·30대의 체제 수호 외침이 커져자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20대·30대를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고립시켜야 한다"고 망언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비방 댓글이 실린 카카오톡도 검열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대파는 박멸하겠다고 전제주의 발상이 일극체제의 거대야당을 지배하고 있다. "어쩌다가 제일 야당이 북한 전제주의 체제를 닮아가는 지경이 되었는가" 한심하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거리의 함성은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특검



최근 생뚱맞게 중도보수를 표방하며 경제성장 정책을 쏟아내는 이재명 대표. 그러나 하루 지나면 탄소리를 밥먹듯 해 '우측 감박이 켜고 좌회전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그의 진짜 색깔은 무엇인가? 나중에 "중도보수라고 했더니 진짜 믿는 바보가 있더라"고 할 것인가.

법 발의·예산안 대폭 삭감 단독 처리로 의회주의·삼권분립·법치주의를 모두 무너뜨려 국정은 작동 불능이고 대한민국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한탄한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혐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범죄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는 적반하장의 폭거였다.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제 조작, 태양광 사업비리 등 청와대의 부조리를 감사하겠다는 감사원장 탄핵 등 무더기 탄핵 소추는 내란수준의 국정문란이었다. 현재의 대통령

민주당 평당원들도 진정성을 의심하고 김부겸·김동연·김경수·임종석·고민정도 '정치사기'라고 비판했다.

2017년 1월 이재명 성남시장은 '손가락 혁명단'에서 "대한민국을 틀어쥐고 있는 재벌의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으나 2025년 신년기자회견에서는 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며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명시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마저 18일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2017년 펴낸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의 프롤로그와 2025년

재명 대표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6·25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립은 친일 세력과 점령군의 합작으로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며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 건국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막말을 했던 이재명 대표가 "6·25 전쟁은 38선에서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다"는 거짓말을 해서 정정과 사과를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잘못을 반성하는 대답이 없었다. 이재명의 건국과 6·25 왜곡발언에 대해서 언론인·정치학자·철학교수들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중북세력의 선전·선동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24년 12월 4일 제출한 1차 대통령 탄핵안에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에 임명하는 정책으로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안보·국민보호 의무를 팽개쳤다"고 주장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중도보수와

체제전복전·탄핵특검·예산 삭감 '국정 마비' 20-30대 탄핵 반대 움직임에 중도 보수론 주창

탄핵 속도전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과 받고 있는 이재명의 3심이 확정되기 이전에 대통령을 탄핵, 조기 대선을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으로 성토됐다.

젊은 세대의 대통령 탄핵반대운동에 대중이 호응하자 이재명대표는 중도보수론을 주창하며 당정체성 변혁을 제기했으나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현장에서는 "이재명의 우클릭 행보가 단순한 말 바꾸기 카멜레온 정치일뿐"이라며 "사법리스크가 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 남미의 포퓰리즘정치처럼 국가를 전락케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탈이념을 선언하고 흑묘백묘(黑猫白猫)를 구호로 내걸고 '우클릭 좌회전'을 하는 이재명의 일관성 없는 선동정치는

주창한 중도보수론은 충돌한다. 이재명은 그의 저서 프롤로그에서 친일기득권세력, 분단세력, 경제불공정, 불합리한 배분을 청산하여 '99%의 흡수자를 위한 혁명'을 주창했다. 계급투쟁론에 의해 국민을 흡수자와 기득권층으로 편가르고 민중에 의한 혁명을 선동했던 저자가 전향 설명 없이 중도보수론을 들고 나와 대중을 현혹하는 현란한 레토릭(修辭)은 공허하게 들린다.

'12·3계엄사태'의 경고가 이재명과 민주당에 큰 충격을 준 것만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직장에 걸렸던 '다시 대한민국'이 민주당 슬로건으로 등장했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거리가 먼 좌편향 종중(從中)·종북(從北) 정당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재명 대표의 중도우파 우클릭 선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가 외교다. 일본에 대해 '적성국' '자위대 군화발' 등의 용어를 쓰며 적대적 발언을 쏟아냈던 이재명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 끔찍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음에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했으나 정치로 인한 왜곡인 걸 알았다"고 반성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일제 총독부의 잔인한 식민지 지배 사실까지 왜곡한 오류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역사를 혁명 대상으로 폄훼한 무지와 망언, 거짓말부터 고백한 뒤에 우클릭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전한길의 한마디는 화산 폭발과 같다”

회우 칼럼

탄핵정국에 ‘사이다 강의’ 신선한 돌풍



신상성
본회 회우
용인대 명예교수



전한길

‘사이다’로 딱히게 된다는 역설이다. 솔직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순과 왜곡에 대해 독하게 질타하기 때문이다.

전한길이가 전한 길목 연설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자기의 생목소리는 별로 없고 이미 언론이나 유튜브에 보도된 내용을 재탕한 것뿐이다. 웅변 기술도 어눌하고 쉰 목소리에다가 연설주체도 지겹다. 지루하고 미진하다. 그런데도 20·30 청년세대들은 왜 그에게 열광하는가. 그 이유는 딱! 한가지인 것 같다. 진실한 팩트를 가지고 온몸으로 소리치는 것 뿐이다.

‘국민 위에 현재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위에 국민이 있다’ 전한길 강사는 ‘국민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현

1. 전한길 일타 강사가 부산역 앞 광장에 나타난 것부터가 전혀 생뚱하게 맞다. 일반 국민들이 거의 모르는 이름과 얼굴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뜬금없이 나타난 그의 첫 연단은 감동의 고래춤이었다. 어쩌면 하얼빈역에 돌출한 안중근 의사의 권총 한발과도 같다면 어긋매끼는 비유일까.

그러나 북극 빙하 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의 거대한 빙벽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그의 탄핵반대 쉰 목소리는 어쩌면 이토 히로부미를 한 순간에 저격한 하얼빈의 한발보다 더 극적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탄핵 인용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현재의 좌파 운동장을 바로 세웠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 탄핵반대가 벌써 50%를 넘어 6부 능선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어쩌면 그의 쉰 목소리 한마디가 한 반도를 뒤집어 놓았는지도 모른다. 최근에는 대학가에서도 들불로 번지고 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를 비롯하여 전국의 대학가가 전한길 깃발을 높이 쳐들고 모여들었다.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압력술로 간혀왔던 양심의 신문고를 두드린 것이다.

‘계엄령은 계몽령’이라고 외치며 디지털 세대답게 전세제로 타전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악폐를 보고 민주당이 따따블폭주당이란 걸 뒤늦게 깨달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9번의 탄핵과 24번의 특검 그리고 행정부 밑바닥 민생예산까지 깡그리 뺑뺑뺑! 터뜨려 간첩, 마약, 경찰 등 국가범죄 제어 기능을 따따블 마비시켜 버렸다. 덕분에 초등학교까지 마약범들이 대놓고 설치게 되었다. 따라서 전한길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집회에 수만명씩 몰려들었다.

‘내란수괴’라는 첫 용어가 여의도 이재명 대표에게서부터 독화살로 대통령 유리창에 즉각 꽂혔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우선 ‘반국가세력’을 정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현재 9차 변론에서 밝혀진 ‘악의 축’ 동선도 드러났다.

이재명-홍장원-한동훈으로 이어지는 악마의 스탈린 커넥션같다. 홍장원 국정원 2차장 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과 한동훈을 체포하라!”는 명령으로 세상이 뒤집어졌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악마 라인인 김병주-박선원-박범계로 중첩된 거대한 좌파 카르텔이다.

물론 현재의 최종 판단으로 밝혀지겠지만 우선 이제까지의 똥냄새 포장지를 벗겨본 미디어의 민낯이다. 결과적으로 한동훈은 여당대표로서 자기쪽 멤버 약 20명을 데리고 투표장에 몰려가 윤 대통령을 감방에 밀어 넣었다. 결정적 반역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조기 대선에 췌기를 박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우격다짐으로 감옥에 보냈던 독성이 다시 도전 것 같다.

2.

전한길은 1970년생으로 경북 경산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경산고와 경북대 지리학과(90학번) 및 모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학 석사를 획득했다. 대학 1학년 때에는 학사경고를 받을 정도로 농땡이었다. 대입시절 아버지는 그를 야단치

면서 울기도 했으며 고백했다.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고 입대했으며 제대 후에는 고향에서 학원강사 등 닥치는대로 뛰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2010년 폐암으로 사망하자 그는 크게 무릎을 치고 후회했다.

자기만의 한국사 강의 노하우 개척에 코피를 쏟았다. 그런 찌 피눈물로 그는 서울의 공무원시험 학원에 픽업되면서 EBS 등에 초빙되어 오늘날 연간 수십억짜리 일타강사로 성공한 것이다. 전국 주요도시 역전 앞에서도 수험생 강의실 같이 온몸으로 열정을 쏟았다.

유튜브 ‘꽃보다 전한길’을 운영하며 지금도 매사에 활화산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의 교육철학은 ‘손가락의 지혜’이다. “상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욕을 하게 되면 검지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향하지만 나머지 세 개는 나를 향하게 된다”. 바로 남을 비난하면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는 세 배로 비난이 돌아오게 된다는 진리이다.

그의 인기강의 요소 중 하나는 쌍욕이다. “저놈의 씨발 새끼! 저 쥐새끼는 아주 나쁜 놈이야, 쥐길 년이야!” 어쩌구 강의 중에도 함부로 날린다. 오히려 그런 욕지거리에 학생들은 시원한

재도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이다’고 괴를 토했다. 국민을 개 돼지로 안다면 현재의 문형배 대행 등도 속아내야 한다. 우리법연구회 속에서도 가장 왼쪽에 앉아 있다며 스스로 극좌발언을 하며 이재명 대표와도 오랜 절친이라며 떠드는 그의 옆에는 같은 동네사람인 이미선, 정계선 판사들이 버티고 있다. 여기에 마은혁 판사까지 덧칠한다면 더욱 새빨간 도화지가 될 것이다.

더구나 그는 동창 카페 n번방에 따리를 틀고앉아 미성년자를 홀랑 벗긴 전율적 음란물 등에 댓글도 달았다는 의혹으로 고소를 당했다. 부도덕하고 위험한 판사가 어떻게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며 약 12만명 넘게 사퇴요구 국민청원이 정청래 법사위원장 책상 앞에 쌓여 있다.

전한길은 두 손을 맞잡고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유지되어야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한·미·일 강력한 공조 아래 수천조의 거대한 원전수출, 방산수출, 트럼프의 조선사업 등에 방점을 찍을 수가 있는 것이다.☞

“현재는 역사속에 사라질 것이다” MZ세대, 진실한 팩트 지적에 열광

특파원 수첩 도쿄 ②

‘천재기사’ 조치훈 한밤중 교통사고 당했다

1986년 1월 6일 집 주변 아파트 도로서 승용차에 치여



정용석
본회 유튜브 위원
전 KBS 도쿄특파원

조치훈!

그는 한국이 낳은 천재 바둑기사였다. 일본 바둑계에서는 영웅적인 존재였다. 이런 영웅 조치훈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86년 새해의 열기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던 1월 6일 밤이었다.

조치훈은 불고기를 좋아했다. 외식을 해도 언제나 야키니꾸(불고기)집을 찾았다. 6세때 형(조상연)의 손을 잡고 일본에 건너온 조치훈은 역시 한국인이었다. 입맛은 속일 수가 없었다.

일상생활에서 일본 말만 하고 주위의 친구들도 모두 일본인들이다. 설사 일본에 귀화한다 해도 식성을 바꾸지는 못했을 그였다. 그날 밤 조치훈은 야식을 하러 불고기집을 가려고 집을 나서던 길이었다. 아파트에서 내려와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타고 큰 길로 나오려던 찰나였다. 늦은 밤 질주해 내려오던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승용차와 오토바이는 동시에 급정거했다.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조치훈은 순간 당황했다. 운전석에서 내린 조치훈은 도로위에 넘어진 오토바이의 주인을 일으켰다. 대학생을 인도로 옮겨놓고 이번에는 오토바이를 옮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제 정신이 아니었다. 그 순간 뒤에서 달려온 왜건차가 덮쳤다. 오토바이와 조치훈은 10m나 끌려갔다. 왜건 운전기사는 오토바이와 넘어진 조치훈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총돌 순간 조치훈은 기절했다. 기절하기 전 “아파트 402호”라는 말을 남겼다. 왜건 운전기사는 402호 문을 두드렸다. 부인 교코여사가 나왔다. 교코 여사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혹시 조금 전에 나간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예감이었다.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다.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남편 조치훈이었다.



불굴의 투지로 휠체어를 타고 바둑을 두는 조치훈(오른쪽).

구급차에 실려 가장 가까운 기타시나가와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 도착 당시 오른쪽 갈비뼈가 밖으로 나왔을 정도의 중상이었다. 의사들은 우선 밖으로 튀어나온 뼈 부근을 소독하고 고정하는 작업을 서둘렀다.

부인은 제일 먼저 요미우리 신문에 알렸다. 요미우리는 기성전을 주최

이 뒤에 회고한 바에 따르면 머리털 나고 그렇게 아프기는 처음이었다고 했다.

수술을 마친 이튿날 필자는 병원으로 그를 찾아갔다. 506호실은 한 평반도 채 안되는 작은 방이었다. 깁스를 한 조치훈은 눈을 감은 채 자고 있었다. 참 비참한 모습이었다. 잘못하

사측에 통보했다. 신문사는 휠체어를 타고 출전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친형인 조상연은 “몸이 더 중요하니 이번은 포기하자. 회복해서 내년에 출전하자”고 동생을 설득했다. 그러나 조치훈은 달랐다. 조치훈의 완강한 출전 의지도 그렇고 기성전 PR을 위해서라도 출전하는게 좋겠다는 결론이 났다.

대국장이 열리는 곳은 동해 쪽의 도야마. 그곳까지는 자동차를 6시간은 족히 걸리는 거리다. 응급조치가 가능한 차를 물색했다. 신문사와 병원 측은 조치훈의 출발이 가능하도록 모든 준비를 끝냈다.

대국 일자가 임박하자 조치훈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나가면 반드시 이겨야지”라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도야마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자동차 이동은 불가능해졌다. 요미우리측은 회사 전용기를 동원기로 했다. 소형 제트기로 탑승 인원은 7명.

15일 아침 병원을 나서서 조치훈

전치 3개월 중상입고 기성전 ‘휠체어 대국’ 대국상대 고바야시도 조치훈 투혼에 탄복

하는 신문사였기 때문이다.

친형인 조상연씨가 서울에서 국제 전화를 받았을 때 교코여사가 우느라고 전화통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없었다. 조치훈의 교통사고는 이튿날 아침 요미우리 조간신문에 보도됐다. 수술은 그 이튿날 시작됐다. 마취의 유효시간은 3시간. 요코야마 주치의의를 비롯한 3명의 의사가 달라 붙었다. 3시간이면 수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워낙 중상이다.

3시간이 지나도 수술은 끝이 나지 않았다. 주치의는 잠시 생각했다. ‘수술을 일단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마취에서 깨면 끝을 낼 것인가’. 의학상으로는 일단 마취하고 다시 중도에서 또 마취하면 머리에 쇼크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금기로 되어 있었다. 환자는 아프겠지만 수술을 속행하기로 했다. 그러니 나머지 한 시간은 마취에서 깬 채 수술이 계속됐다. 조치훈

면 불구가 될지도 몰랐다.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핑 돌았다.

기성전(棋聖戰) 바둑은 연기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신문사측도 인도적인 생각에서 연기해야 하지 않을 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는 신문사 스키야시 문화부장을 찾아갔다. 평소에 안면이 있었고 전화로 사전연락을 해두었으니 기다리고 있었다. 스키야시 부장은 내가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 미리 짐작하고 ‘기성전 바둑규약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스키야시는 “만일 도전자인 고바야시가 이런 사고를 당했어도 못나 온다면 ‘부전패’로 간주한다”고 설명을 해주었다. 한국인이어서 연기 못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라는 취지였다. 부장과의 육성 인터뷰는 당일밤 KBS 9시 뉴스에 그대로 방송되었다. 조치훈 본인도 대국연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대국장에 나가겠다”고 신문

은 들것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인터뷰가 이때다 싶었다. “조기성, 대국에 나가는 지금의 심정은?” 하고 마이크를 바싹 갖다 댔다. 혹시나 반응이 나올지도 몰랐다. 마이크를 댄지 10초가 지났다.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고 눈은 찡그리고 있었다. “아픈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주변에서 말했다.

대국이 열리는 다카오카시 아마하라시 호텔에 지방의 TV, 신문사 보도진들이 몰려왔다. “저런 몸으로 바둑을 두다니,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PR이 됐으니 도중에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언제 돌을 던질지 보도진들은 도쿄로 돌아가지 않았다. 조치훈은 불굴의 투지로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패배로 끝났다.

이틀 후 취재진들은 도쿄로 돌아왔다. 포기를 모르는 조치훈의 끈질긴 인내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영원히 각인되어 있었다.☞

대한연론 특별기획 근현대사 실록 ②6

“나라를 구하는데 밤낮이 따로 있나”

대한민국 國父
이승만

그 역사는 달밤에 이루어졌다. 유엔을 활용한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사 뒤안길에는 이런 드라마가 숨어 있음을 다 알았는가? 여류시인 모윤숙(毛允淑, 1910~1990)과 인도 외교관 메논(K.P.S. Menon, 1898~1982)이 그 주인공들이다. 1947년 말 덕수궁에서 열린 파티에서 처음 만난 남녀는 인도 시인 타고르의 시(詩)로 시작된 대화로부터 ‘문화의 우정’이 맺어진다.

27) 모윤숙과 메논 ‘달밤의 드라이브’

이것이 대한민국 탄생의 결정적 불꽃이 될 줄이야. 그 달밤의 기막힌 사연을 따라가 보자.

바로 앞의 연재에서 본대로 유엔감시 남북한 총선거 결의안이 통과된 후 유엔한국위원단이 서울에 왔다. 유엔결의안을 반대한 소련은 38선을 봉쇄, 유엔대표단의 입북을 거부한다. 벽에 부딪친 위원단은 의견이 갈라져 우왕좌왕 끝에 단장 메논이 유엔본부의 결정을 받아 오기로 했다. 그의 뉴욕 향발 전날 밤, 이승만이 기막힌 ‘달밤 외교’를 연출했던 것이다.

◆서울 남대문시장 건너편 회현동에 유엔한국위원단 숙소 국제호텔이 있고 바로 앞에 모윤숙의 집이 있었다. 4분5열된 남한에서 “이승만 박사만이 대통령감”이라고 주장하는 모윤숙과 중립국을 자임하는 인도의 대표적 외교관 메논은 시와 정치와 우정 사이에서 신묘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봐, 윤숙이. 밤이 좀 늦었지만 메논씨를 데려와, 아주 중요한 일이야.” 이승만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모윤숙은 회고록에 그날 일을 다 적어놓았다.

“박사님도…시간이 몇 신데 이 밤중에 여자가 어떻게 그런 청을 할 수 있겠어요…”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고비에 밤낮이 있나. 어서 전화 좀 해봐, 제발 마지막 청이야.”

존경하는 우상 이승만의 간곡한 목소리에 모윤숙은 용기를 내서 핑계를 찾는다. 며칠 전 메논이 인도의 타지마할은 달밤에 봐야 제 맛을 알 수 있다고 했을 때 모윤숙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많다고 자랑했다. 이거다. 전화를 걸었다. “달빛이 좋은데 금곡릉 산책 어떠신가요?” 메논은 뉴욕 다녀와서 가자고 했다. 모윤숙은 “할 말이 많다”고 때를 썼다.

두꺼운 코트까지 산책 차림으로 집 앞에 차를 세우는 메논, 냉큼 올라타는 모윤숙은 미안했다. “추운데 좋아하시는 인삼차 드시고 가지지요.” 차를 이화장 앞에 세우게 하자 메논이



▲이승만대통령과 여류시인 모윤숙, 인도 외교관 메논.



▲영운(嶺雲) 모윤숙의 유명한 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가 실린 애국시집 표지.

크게 소리쳤다. “노티 걸”(Naughty Girl)!! 그때 한복 바지저고리를 입은 이승만 박사가 뛰어어나와 메논을 안았다. “미스 모가 왕릉 달 구경 가자기에…여기가 목적지 아닙니다.” 겸연쩍게 웃는 메논이었다. 두 남자가 인삼차를 마시며 정치이야기를 하는 동

“박사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승만은 달랐다. “미스 모의 이름으로 보내야 메논이 읽어보잖아.” 전문 끝에는 모윤숙으로 하여금 ‘Marian Moh’라는 친필서명을 꼭 쓰게 하였다. 이렇게 보낸 전보문은 1주일간 10통도 넘었다.

한만이라도 소련의 공산화로부터 지켜낸 역사적 순간이었다. 서울에 돌아온 메논이 어찌나 감사한지, 모윤숙은 진짜 달밤에 금곡릉으로 데려가 산책을 했다. 이윽고 인도의 외무장관이 되어 귀국한 메논은 그 후 모윤숙을 뉴델리로 초청했다. 메논 부부의

모윤숙 동원…유엔 한국 위원장 메논과 ‘달밤외교’ 메논 “이승만은 마력의 민족지도자” 유엔을 설득

안, 프란체스카는 모윤숙을 데려가더니 저명인사 60여명이 붓글씨로 서명한 두루마리를 주는 것이었다. 이게 목적이다. 김구식, 김구 등이 벌써 지지자 명단을 메논에게 주었다는 정보를 뒤늦게 알게 된 이박사가 당황해했다고 한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모윤숙이 사과하며 코트 주머니에 두루마리를 넣어주자 메논이 말했다. “이런 일은 사무국을 통해서도 되는데…나는 이박사가 벌써 포기한 줄 알았잖아요.”

◆이승만은 ‘포기’를 모르는 거시적 전략가, 어떻게 얻어낸 유엔 결의안인가. 만약 유엔이 한반도 총선거를 철회한다면 통일정부 수립은커녕 남한마저 소련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 메논이 유엔으로 떠나자 이승만은 모윤숙을 닦달하여 날마다 전보를치게 한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그가 잊지 않도록 해야지.” 모윤숙은 질렸다.

“메논씨는 내가 그렇게 유창한 영어로 편지를 쓸 줄 모른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회현동 내집으로 꼬박꼬박 답장을 보내주었다. ‘한국인들이 원하는 대로 힘쓰고 있소. 선이(모윤숙 딸)에게 이 초컬릿을 전해주시오’ 참 고마운 분이였다.” (모윤숙 [이박사와 메논-영운 모윤숙 문학전집] 1989)

메논 “이승만은 마력의 민족 지도자” 유엔을 설득하다.

◆마침내 유엔이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결정했다. 한반도 인구 70%가 사는 남한이 총선의 대표성을 가진다는 결의안은 2월26일 31대2로 통과되었다. 메논이 본국의 방침과 달리 “이승만이란 이름은 한민족을 끌어당기는 마술 같은 힘을 지닌 전설적 지도자”라고 유엔을 설득한 결과였다. 메논을 설득하는데 모윤숙까지 동원해야 했던 이승만은 이렇게 하여 남

극진한 대접을 받은 모윤숙은 그러나 타지마할 관광만은 혼자 해야만 했다. 그녀는 울었다. 러시아 대사를 끝으로 은퇴한 메논은 뒷날 회고록에 이런 고백을 남겼다.

“매리언 모는 시인이자 애국자였다. 그녀에게 남한 정부 수립이 독립이었고 이에 반대하면 조국의 배신이었다. 매리언은 모든 희망을 나에게 걸었다. 나를 ‘구세주’라고 칭송하는 시까지 써 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반대표를 던졌다면 그녀는 비통에 빠졌을 것이고 다시는 그녀 얼굴을 볼 수 없었을 게다. 나는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것은 아마도 내 평생 임무 수행 중에 머리보다 가슴을 우선시킨 유일한 예외일 것이다. 내 행동의 결과가 나쁘지 않았으므로 위로를 삼는다.” <계속> ㉠

인보길(전 조선일보 편집국장·현 뉴데일리 회장)

‘민주화 성지’ 광주 금남로

보수-진보 ‘한국사 1타 강사’ 연설 불꽃 대결

지난 2월 15일 광주시 금남로에서 보수와 진보 세력이 불꽃 튀는 ‘광주 대첩’을 펼쳤다. 왕복 6차로 도로에 한반도 DMZ를 연상시키는 ‘차벽 산성’을 가운데 두고 고성능 스피커를 동원한 즉석 연설로 격전을 치른 주인공들은 ‘한국사 1타강사’로 유명한 전한길과 황현필. 두 사람은 대입 수능과 공무원 고시학원에서 수많은 제자를 가르쳐온 라이벌로 이날은 좌우를 대표하는 정치 연설로 치열한 맞대결을 벌인 것이다.

호남인들이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며 우파 인사의 방문조차 거부했던 금남로였지만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열망하는 국민 다수가 전한길 강사를 따라 물밀 듯이 모여 들었다. 오후 2시에 모인 군중은 KTX 열차와 전세버스를 타고 찾아온 타지인 외에 광주와 호남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합세했는데 5·18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에 이어 ‘대한민국 만세’를 함께 외치는 감동적인 광경을 보이기도 했다.

개신교계 보수단체 ‘세이브 코리아’가 주관하는 행사는 1부 노상 예배에 이어 옥중에 있는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애국집회로 이어졌다. 오후 3시께 붉은색 셔츠 차림의 전한길 강사가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연단에 오르자 금남로 6차로 도로와 인도 골목길까지 가득 메운 6만 명(주최측 추산)의 군중들은 목이 터져라 “전한길, 전한길”을 연호했다.

“국민 여러분이 지금 모이신 금남로는 우리나라 5·18 민주화 운동의 표상입니다. 80년대 초 이곳에서 많은 피를 흘린 희생자를 기억하려고 저는 붉은색 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여기서 자유와 공정을 바라는 애국 시민 여러분을 직접 만나니 너무 감격스럽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자 이번에는 ‘대통령 석방’을 연호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이날 1시간이 넘는 연설 말미에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이루어지면 이 전한길도 본래의 직업을 찾아 가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보수 집회보다 약간 늦은 시간에 5·18 민주 광장에서 열린 ‘제14차 광주시민 총괄기대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북도지사와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호화군단이였다.



광주지역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라는 단체 주최로 2만여 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모인 이날 행사에서 진회색 슈트 차림으로 연단에 오른 황현필 강사는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 전남대를 나와 모교인 광주 살레지오

반면 1970년 경북 경산시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난 전한길 강사는 경북대학교 지리학과를 나와 2000년 경북대 교육대학원에서 지리 교육학 전문 석사, 그 후 경북대 대학원에서 한국사 전공으로 사학 석사를 받았다.

을 내 모범납세자 상을 받은 경험도 있지만, 집사람은 아직도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한 방송에서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늘 미남형 외모에 깔끔한 정장 차림인 황현필 강사보다 라운드 티셔츠를 즐겨 입는 전한길 강사는 아직도 시골티를 벗어나지 못한 순박한 이미지라 강의 현장에서 입버릇처럼 욕설을 쏟아내도 수강생들은 거부감 없이 좋아한다. 자신의 강의를 들은 제자가 전국에 2백만 명이 깔려 있다는 장담처럼 지난달 19일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을 민주당이 ‘허위정보를 유출했다.’고 구글에 신고하자 오히려 구독자가 일주일새 30만 명이 늘어 이제는 126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여의도, 부산역, 동대구역, 금남로 등 세이브코리아의 보수 집회에 연사로 나서고부터는 강사로서의 수입 창출은 당분간 포기한 상태가 됐고 신변 위협도 느껴져 개인 경호원을 채용하고 경찰의 신변 보호까지 받는 처지가 됐지만, 밖에서 “국힘 의원 108명보다 전한길이 낫다”는 우

전한길 “국민분열 아닌 화합정신으로 이곳에 왔다”

황현필 “계엄으로 위협한 尹정권 절대 용납 못해”

고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고는 “광주에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집회를 하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반대편 탄핵 반대 집회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다행히 양측 참석자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고려대 대학원에서 역사 교육학 석사를 수료한 그는 EBS 수능 특강 강사, 공무원 한국사 강사, 이투스 수능 한국사 강사 등을 지내며 명강사로 부와 명예를 쌓아왔다. 최근에는 강의를 쉬면서 역사바로잡기연구소와 태백광노 대표를 맡고 있다. 자신이 직접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황현필 한국사’는 구독자 108만 명이 넘는 정도로 인기가 많다.

위낙 흡수저 집안 출신이라 학부 시절엔 한국사 아르바이트 강사로 입시생을 지도해 생활비를 벌어 썼고 한때는 세상 물정 모르고 형님 집을 담보로 학원을 인수했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빚쟁이가 되어 죽을 고생을 치른 적도 있었다.

그후 자신이 좋아하는 각종 역사 과목 교재, 시험문제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독자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험생이 알기 쉬운 강의법으로 수강생이 늘어나자, 대구의 유명한 유신학원에 스카우트되었다가 서울로 진출, 노량진 등 학원가의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한 때는 연 매출 2백억 원이라는 황금알을 낳은 선생님으로 소문난 그는 “소득 60억 원에 세금 30억 원

스갯소리가 들려와 자신이 앞으로 할 일에 큰 용기를 얻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한길·황현필이라는 보수와 진보의 두 스피커의 연설 대결은 광주가 끝이 아니다. 군중 동원력이나 연설 시간(150분:23분)과 흡인력에서는 전 씨가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황 씨도 일당백의 커리어를 갖춘 진보 진영의 믿음직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우선 두 사람은 오는 3월1일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질 ‘삼일절 세(勢)대결’에서 탄핵 반대나 아니면 탄핵 찬성이나를 놓고 자존심을 걸고 포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익식
(본지 편집위원·전 서울신문 부국장)

마주보고 달리는 대학가 ‘탄핵열차’

반탄 vs 찬탄 ...정치 전면에 나선 20-30대



문관현
본회 편집위원
연합뉴스 부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논란의 불길이 전국 대학가로 번지고 있다. 지난 2월10일 연세대학교를 비롯해 15일과 17일 서울대학교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등 탄핵 찬성은 물론 반대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일정이 10차로 연장되는 등 탄핵정국이 길어지면서 대학 캠퍼스를 무대로 탄핵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21일에는 고려대학교 일부 재학생과 졸업생 3백여명이 고려대 정문 앞에서 “사기 탄핵, 민족의 수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탄핵 반대집회를 열었다. 주최자 중 한 명인 23학번 유모(21·식품자원경제학과)씨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년들이 일어나 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교육학과 16학번 김모(28)씨는 “대통령 탄핵 반대는 정권의 문제를 넘어 국가 존립의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나섰다”고 외쳤다.

‘민주화 성지’ 광주광역시 소재 조선대학교에서도 28일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하며 앞서 18일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 정문에서 경북 지역 대학생과 졸업생, 시민들이 집회를 갖는 등 탄핵반대 여론이 탄력을 받는 추세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탄핵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자 이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풀이된다. 향후 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가리지 않고 전국의 대학에서 탄핵 찬반 ‘맞불 집회’를 잇따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4일 발표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7%, 탄핵 반대는 38%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에 해당되는 18~29세는 탄핵 찬성 61%, 반대 29%로 집계됐다. 30대 경우도 찬성 58%, 반대 35%로 찬성을 지지하는 입장이 우세한 결과로 드러났다. 개인의 의견과 무관하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



지난 2월15일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 참석자들이 충돌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과에 대한 예상을 문자 응답자 59%는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봤고, 32%는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기관과 시기, 지역, 연령 등에 따라 크고 작은 편차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비

태에서 등장한 ‘K팝 응원봉 시위대’의 주축이 20·30여성이라는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 집회의 경우 대학가 집회 수준을 넘

과없이 표시했다. 이들은 확성기로 불교경전을 틀거나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대형 스피커로 방송하는 등 상대집회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고 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소신과 주장을 발표할 수 있는 학내 게시판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난하는 대자보가 붙여졌으나 며칠 만에 찢겨지거나 다른 인쇄물이 덧붙여지는 불쌍사나운 사태가 속출했다.

이에 서울대 대학본부 관계자는 “집회가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은 그동안 거의 없었다. 이제 외부인이 학내 구성원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집회를 보장하면서 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는 모양새로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대학가 역시 상당한 정치적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밑바닥에는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아니고 누구를 싫어하느냐를 서로 주장하는 혐오 민주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한국 정치의 미래를 짊어질 20·30세대가 과연 극단적 분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화와 타협

정치적 갈등에 집회 물리적 충돌 우려 야만적 시위없는 ‘광장 민주주의’ 바람직

슷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

대학생들의 대규모 집회 참석은 물론 교내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이거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 등에 탄핵을 주제로 한 찬반 논쟁이 잇따르고 있다. 대학생들은 젊은 세대답게 대학 울타리를 벗어나 동대구역 광장과 광주광역시 금남로 등 대규모 집회에도 참석해 탄핵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기탄없이 표시하고 있다. 광우병 과동 때 10대 고교생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을 주도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촛불집회를 대학생들이 이끌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그리 놀랄만한 상황은 아니다. 더욱이 이번 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

어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는 점이다. 교내 집회에 재학생은 물론 외부 집회 참가자와 유튜버들까지 몰려들며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집회장소인 아크로폴리스 광장을 두고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두 진영 사이에 험악한 대치상황이 벌어졌다. 옥설과 고성이가 오가며 맥살까지 잡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급기야 경찰과 교직원들이 참가자 간 구역을 나누기 위해 인간띠를 만들어 대응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집회와 시위 문화 단면이었다.

탄핵을 찬성하는 대학생들이 아크로폴리스의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저들의(탄핵반대 세력)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 없다”고 적대감을 여

의 경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탄핵정국의 바다를 건너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의 진흙탕 싸움과 다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질서 있는 집회를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법원이 습격당하고 자신과 다른 입장을 지닌 이들을 악마화하는데 급급한 야만적 시위문화를 냉정하게 뒤돌아봐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고 차분하게 합의를 도출하는 ‘광장 민주주의’의 성공적 사례를 기대해 본다.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젊은 세대임을 명심해야 한다. ☞

이승만 건국 대통령 부활 오디세이

이승만이 부활해야 대한민국 살아난다



되살리자!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국가가 아니다.

80년 전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해방) 좌우충돌의 대혼란의 진통을 거친 후(광복) 기적적으로 탄생(건국)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5천년 민족 역사상 상상도 못했던,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국가체제를 과감히 도입해 대한민국 건국의 우렁찬 팡파레를 울렸다. 그 중심에 이승만 박사가 있었다. 봉건의 잔재를 훌훌 털어 버리고 근대국가 건립과 초석을 다지는데 그의 지성과 열정 그리고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남 이승만 박사. 그는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다!

을사년 올해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탄신 150주년(3월26일) 되는 해이고 서거 60주년(7월19일) 되는 크게 꺾어지는 해이다. 우리는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출발점으로 되돌아가 건국의 정신을 되새기고 정기(精氣)를 다져야 한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기(邪氣)가 서울 상공을 배회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지금 국가의 정통성이 도전 받고 체제가 흔들리는 이 시점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역사의 전면에 소환하고 부활 운동을 벌이는 소리가 여기에 있다.

3월26일 ~ 7월19일

이승만 부활 오디세이 행사일정

- ▲ 이승만바로알기 국민연합 출범식 : 3월5일(수) 오후 2시, 여의도 국회박물관
- ▲ 기념강연회 : 3월5일(수) 오후 3시, 여의도 국회박물관
- ▲ 이승만과 함께 걷기대회 : 4월5일(토) 서울 남산 일대

이승만 바로알기 국민연합 | 사무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8 오성빌딩 1108호

■ **참여단체** : 이승만 건국대통령 동상 광화문광장 건립추진위원회(회장 변정일), 대한언론인회(회장 장석영), 자유헌정포럼(대표 김의재), 한미연합회(회장 송대성), 나라지킴이 고교연합(회장 임주성), 민족중흥회(회장 정재호),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대표 김학성),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 한반도미래재단(이사장 구천서), 대한민국지킴이 리박스쿨(대표 손호숙), 한미동맹 이승만재단(회장 노영애), 한국수중협회(대표 홍성훈), 독도사랑 국민연합(대표 황대영), 전군구국동지연합회(회장 최종대), 자유와 연대(대표 최종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표 김근태), 공군학사장교구국동지회(회장 이창호), 해병대전우전국총연맹(총재 이규조), 국민희망시대(회장 손한나)

■ **임원** : 상임고문: 고영주 김의재 송광호 송대성 안병직 인보길 장석영 정재호 황교안
 대표: 변정일 부대표 겸 집행위원장: 구천서 부대표 겸 기획위원장: 성윤환 부대표 겸 홍보위원장: 이규진 부대표 겸 대외협력위원장: 임주성, 김은구
 부대표: 송병대, 심규철, 김영숙 총괄본부장: 김유정 행사본부장: 이진수 홍보본부장: 이일현 상임이사: 양대웅, 인지연, 박재호, 박창우, 손호숙

“외신기자인 나도 스스로 계몽되었다”

한국 법치주의 붕괴 우려...국민들 ‘위법’ 분노



요시다 켄지
〈재팬포워드〉서울특파원

‘재팬포워드’ 주한 서울특파원 요시다 켄지 특별기고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엄과 탄핵 정국에 대해 한 주한 외신기자가 특별한 글을 보내왔다. 주인공은 일본 산케이신문(産經新聞)산하 유력 영자지인 〈재팬포워드〉(Japan Forward)의 서울특파원 요시다 켄지 기자. 21년부터 한국 관련 뉴스를 영어로 보도하는 그는 한국어문 구사에도 아주

능하다. 미국 윌리엄&메리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The Diplomat, Asia Times 등 영자지는 물론 일본의 주간 〈신초〉 월간 〈하나다〉에도 활발한 기고활동을 하고 있다. (편집자 註)

처음엔 계엄에 비판적인 글을 많이 썼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불의와 불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12·3 계엄령 사태를 겪으며 “스스로 계몽되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필자 역시 그중 한 사람이다.

처음엔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필자는 그날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잠시 깨어보니 편집장으로부터 긴급 취재 요청 이메일이 와 있었다. 편집장은 한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소식에 매우 긴박한 어조로 “혹시 북한이 침공한 것 아니냐?”며 메일을 보냈다. 필자는 즉시 언론사의 속보와 외신 기사를 확인하고 아는 지인들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상황을 대략 파악하고 나니 편집장이 왜 그토록 급박했는지 이해가 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문에서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다소 격앙된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사실 필자는 12·3 계엄령에 대해 초기에는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이번 사태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이고, 위헌·위법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 여겼다. 단, 다른 정치적 수단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을 투입한 것은 ‘정치적’ 오판이라 생각했고, 12월 7일자 영문 칼럼에서도 이와 같이 평가했다.

그런 흐름에서 필자는 사태 발생 이후 줄곧 계엄령에 비판적인 정치인과 지식인들을 인터뷰해 왔다. 예컨대 처음 만난 인물은 송영길 전 민주

당 대표였으며 이후 김병주 의원, 문정인 교수, 정규재 대표, 조갑제 선생, 쿠로다 카츠히로 기자(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등과도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고, 공수처를 비롯한 여타 수사당국에 의한 내란죄 혐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때부터 야당의 독주와 수사기관 간의 영역 다툼 등 다소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기자로서 중립적인 입지를 유지하며 한국의 사법부가 제 기능을 다할 것이라 믿

었다. 이후 서부지법의 두 판사가 2차 체포영장과 체포연장신청을 각각 허락했고, 1월 26일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서부지법의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거라 믿었던 서울중앙지법 조차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체포 적부심을 묵살해 버렸다.

필자는 지난해 한 영문매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 같이 유혈사태나 폭력적인 분쟁이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혼란이 가중되는 정국 속에서 1월 19일 법원의 법치 파괴

현직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금한 공수처, 그리고 그 불법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편승한 검찰과 법원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과 진배없다. 오동운 공수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의 판사들은 애초에 전면전을 벌일 각오로 이 판에 뛰어든 것 아닌가?

밥 먹듯 대통령 탄핵하는 나라

필자는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며칠 뒤 한국의 한 보수 지식인과 저녁을 함께 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필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한국은 왜 대통령 탄핵을 밥 먹듯이 하는가?

돌아온 답변은 놀라웠다. 그는 “한국처럼 대통령 탄핵이 쉬운 나라가 어디 있나?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게 더 바보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였다. 백 번 양보해 국회 탄핵은 정치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적어도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리를 진행해야 마땅한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행태를 보면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만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본인들의 자체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못 지키는 법관들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타인의 행위가 위헌인지 아닌지 판가름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과 협력한 홍장원과 곽종근을 중심으로 내란 프레임이 형성되었고, 이를 계기로 탄핵 공작이 시작됐을 것이라 추정했다. 필자 또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더 일찍 이 공작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나 자신이 한심할 따름이었다. ☐

계엄⇒국회탄핵소추⇒현재 판결 尹대통령 “불법에 싸우겠다” 의지 짧은 헌정역사 대통령탄핵 3번

고 기사와 인터뷰를 실어 나갔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로부터 약 보름 뒤인 30일, 공수처는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튿날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 체포라는 전대미문의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법치주의 붕괴를 보다

애초에 수사 및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영장판사 소핑까지 한 것도 모자라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에 제동을 걸기는 커녕 형사소송법까지 위반하며 이에 동조한 영장판사를 보고 한국 법치주의 붕괴가 시작되었음을 절감했다.

안타깝게도 예상은 빗나가지 않

행위에 분노한 시민들에 의한 서부지법 습격이라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현재 관련자 63명이 기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폭력적인 시위와 언행이 우선 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날 그 일을 벌인 사람들의 격분과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눈앞에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현상을 목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위법한지, 또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관련 법원의 몫이겠지만, 적어도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에 대해 심정적으로 공감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 63명은 국민을 대표해 불의와 맞서 싸운 것이다.

‘젊은 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광폭 행보

꺾고려웠던 문체부-대한체육회 화해무드

유승민(43) 신임 대한체육회장이 한국 체육 발전을 위한 광폭(廣幅) 행보를 벌이고 있다. 2004 아테네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인 유 회장은 2월 28일 대한체육회 총회에서 정식 취임한 뒤 3월부터 직무에 들어가지만 지난 1월 14일 제42대 회장 선거 당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차관 면담에 이어 최근에는 국회의장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나 한국 체육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한 협조를 구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유 회장은 지난 2월 3일 국회를 방문, 올림픽 3연패 위업을 달성했던 ‘사격 황제’ 진종오(42·국민의힘), 여자 핸드볼 올림픽 2연패를 이룩한 임오경(54·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과 체육계의 개혁에 관한 대화를 나눈 뒤 한국 체육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받았다.

진 의원은 유 회장의 체육회장 당선을 축하한 뒤 “체육계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할 중요한 시점인 만큼 대한체육회가 선수와 체육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국회도 혁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진 의원은 “대한체육회장 직함이 특정 인물의 권력유지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며 이기흥(70) 전 체육회장의 3선 도전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유 회장은 “체육계를 바꾸기 위한 진 의원의 용기와 결단을 느낄 수 있었다. 대한체육회장으로서 선수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



지난 2월 3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을 만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오른쪽)이 진 의원과 손을 맞잡고 있다.

한편 유 회장은 대한체육회장 당선 이틀 뒤인 지난 1월 16일 문체부를 방문, 유인촌(74) 장관과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42) 차관을 면담했다. 유 회장은 “장관께서 그동안 꺾고려웠던 문체부와 체육회의 관계를 말씀하게 해소하고 한국 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고 전했다. 이어 유 회장은 “유 장관께서는 제 선거 공약 중 특히 학교와 지방 체육에 많은 공감을 하셨습니다.”며 “은퇴 선수 대책에 관한 부분에서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는 이기흥 전 회장이 지난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문체부의 특별 감사에 이어 직무 정지처분까지 받아 임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기흥 전 회장은 작년 1월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 홀에서 열린 2024 체육인대회에서 대통령실 장상윤(55) 사회수석에게 문체부 견제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는 가하면 작년 8월 파리올림픽 한국선수단 귀국 환영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문체부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웠다.

2016년부터 8년간 대한체육회장을 2연임했던 이 전 회장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TV와의 인터뷰에서 “3연임을 하든 5연임을 하든 그것은 내 마음이다.”며 자신감을 보였으나 막상 선거에서는 득표가 379표에 그쳐 417표를 얻은 유 회장에게 38표 차로 고배를 들었다.☞

유 신임회장 “은퇴선수 대책 수립 중요”

했다.

유 회장과 진 의원은 대한체육회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관해 의견을 나눴으며 유 회장은 “스포츠공정위(위원장 김병철)의 개혁과 함께 체육계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스포츠 유소년을 위한 해외교류 확대를 추진해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도 논의했다

유 회장은 이어 우원식(68) 국회의장, 박 정(63) 국회 예결위원장, 올림픽 여자핸드볼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임오경 의원 등 국회 문체위 소속 의원들과도 만났다. 임 의원은 유 회장

과의 면담에서 “그동안 문체부와 체육회의 대립으로 체육 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법안 통과, 제도개선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아쉬웠다”며 “대한체육회 현안 해결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의원은 아울러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등을 포함한 체육 정책을 담은 자신의 ‘대한민국 체육발전 건의문’을 유 회장에게 전달했다.

유 회장, “은퇴선수 대책 수립 매우 중요”

이종세(본회 부회장·전 동아일보 체육부장)

스포츠포럼 21 정기총회 성료

손기정 일생-정신력 집중 조명

스포츠포럼 21(상임대표·차광석 건국대 명예교수) 2024년 초청 강연 및 정기총회가 지난 2월 7일 서울 중구 만리동 손기정 기념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초청 강연은 이준승 손기정기념재단 사무총장이 연사로 나서 ‘대한민국 체육인 손기정’을 주제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의 일생과 강한 정신력을 집중 조명했다.

이 총장은 “손기정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제패한 마라토너로서 1935

년 수립한 공인 세계신기록(2시간 26분 42초)을 12년간 보유했었다”며 “손기정은 각종 행사에서 일장기를 달지 않아 일제의 눈총을 받았다”고 돌이켰다.

1998년 체육계,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주축이 돼 출범한 스포츠포럼 21은 그동안 60여 차례의 포럼 개최와 70여 차례의 포럼지(誌) 발간을 통해 체육계가 당면한 현안 지적과 미래 과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현 집행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상임대



스포츠포럼 21은 지난 2월 7일 서울 중구 만리동 손기정 기념관에서 2024년 초청강연 및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상임대표에 채 준(앞줄 왼쪽부터 세 번째) 머니투데이 경제산업부장을 선임했다.

표에 일간스포츠 체육부 기자 출신으로 현재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기자인

채 준 경제산업부장을 선임했다. 임기는 2년.

예술인 그 삶과 예술혼 ㉒

전형적인 한국 여인상 조미령

‘춘향전’ ‘마부’ ‘혈맥’ 등 영화 127편 출연

조미령(趙美鈴)은 한국영화의 성장기, 중흥기를 거쳐 전성기를 구가할 때인 1955년부터 1969년까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국영화 최고의 인기배우였다. 불세출의 스크린 스타로 명성을 날렸고, 대중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본격적인 스타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한 배우였다.

조미령은 육체적 관능미가 뛰어난 여배우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절세의 미인도 아니었다. 사색의 깊이가 있는 배우도 아니었다. 키도 160cm가 안될 정도로 작았다. 남자가 품으면 가슴에 쏘옥 안기는 크지 않은 왜소한 몸매에 둥그런 달덩이 같은 친근한 동양적인 얼굴에다 청순한 소녀의 미소 이미지를 지닌 한국적인 여인상이었다. 평균적인 한국인의 기호에 가장 적합한 전형적인 한국 여인상으로 까다롭지 않은 대중들의 연인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 밝고, 싱싱하고 귀여웠다.

조미령이 스타덤에 오르기까지에는 남편인 영화 프러듀서 이철혁의 헌신적인 후원의 공이 컸다. 아무리 신체적인 조건이 뛰어나고 연기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더라도 행운을 만나지 못하면 스타덤에 오를 수 없다. 행운의 첫 조건은 능력 있는 프러듀서나 재능 있는 감독을 만나는 것이다. 단순한 육체와 상품이었던 마릴린 먼로가 연기하는 배우가 된 것은 극작가 아서 밀러를 만나고 부터였다. 김기영 감독은 언니가 운영하는 명동의 다방에 놀러온 김지미를 ‘황혼열차’에 발탁했고, 무명배우 윤여정을 ‘화녀’에서 스타로 올려 놓았다. 신상옥 감독은 최은희를 명배우로 성장시켰고, 임권택 감독은 아역배우 출신 강수연을 월드스타로 만들었다. 송강호도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으면 스타가 될 수 있었을까. 스타는 능력 있는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행운의 일차 지름길이다. 영화배우도 세상사처럼 인복을 타고나야 스타가 된다.

조미령은 1929년 2월 4일 경남 마산(지금의 창원시)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조제순(趙濟順). 8세 때 연극 ‘임자 없는 자식들’에 첫 출연한 후 소녀 시절부터 무대의 산고를 체험했다. 그녀는 극장분장실에서 자랐고 연극무대에서 컸다. 1939년 동양극장 전속단체 중의 하나인 ‘청춘좌’에 입단, 본격적인 연기생활을 시작했고, 1943년



동양극장 후반기 최대 히트작인 연극 ‘어머니의 힘’에 출연했다.

영화는 1948년 ‘해연(일명 갈매기)’으로 데뷔했다. 이 영화는 이철혁이 제작한 문예작품으로 신인 시나리오 작가 이운용의 각본을 당시의 거장



‘왕자호동과 낙랑공주’ ‘아리랑’등을 제작하면서 아내인 조미령을 계속 출연시켰다. 이런 남편 이철혁이 1958년 3월 16일 1남 2녀를 낳긴 채 심장마비로 급사했다.

한국영화산업의 기폭제 역할을 한

강대진 감독의 ‘마부’, 유현목 감독의 ‘성웅 이순신’, 김수용 감독의 ‘혈맥’, 신상옥 감독의 ‘로맨스 그레이’ 등 유명 감독의 작품에 출연하면서 1969년까지 전성기를 누렸고, 1981년 조문진 감독의 ‘두 아들’로 완전 은퇴할 때까지 127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1962년 조미령은 간통죄로 피소됐다. 유부남이었던 재미동포 최동원을 만나 동거, 임신까지 하자 최씨의 아내가 서울지법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고 연이어 간통 및 폭행혐의 사실을 들어 서울지검에 형사고소를 했다. 최동원은 미국 하와이 출신으로 미군에 입대하여 육군 대위로 한국주둔 미군에 근무했다. 그해 12월 조미령과 최동원은 위자료 60만 원을 지불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형사고소 사건은 이혼이 합의된 정상을 참작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1966년 5월에는 조·최 부부가 사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피소된 사건도 발생했다. 최씨가 충무로에 있는 통영공예사 대표에게 샌프란시스코에 백화점 5개를 운영하는데 나전칠기를 판매해 주겠다고 9천달러어치의 물건을 보내게 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

8세때 연극데뷔...분장실서 자랐고 무대에서 컸다
1960년대 톱스타, 하와이서 96세 굴곡진 삶 마감

이규환이 감독했다. 남해의 소년감화원을 무대로 불우한 소년들을 사랑으로 감화시킨다는 계몽영화였다. 조미령은 감화원 보모 여동생 역으로 출연했다.

조미령은 ‘해연’을 촬영할 때 같은 고향 출신 제작자 이철혁과 결혼했다. 그녀 나이 19세였다. 이철혁은 23세 때인 1934년 동경유학생들이 조직했던 연극단체 ‘동경유학생예술좌’ 중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엘리트 연극인 출신 영화 프러듀서로 ‘해연’의 기획자였다. 또 영화잡지 <예술영화>를 창간할 만큼 영화를 예술로 보는 당시에 보기 드문 영화 프러듀서였다. 이철혁은 1955년 자신이 제작한 흥행대박 영화 이규환 감독의 ‘춘향전’에서 아내인 조미령을 26세인데도 주인공인 10대 성춘향으로 캐스팅했다. 이어서

‘춘향전’의 흥행대박으로 관객들의 눈에 확실한 도장을 찍은 조미령은 그 이듬해 1956년 이병일 감독의 ‘시집가는 날’에서 맹진사댁 몸종 이쁜이 역을 맡아 순수한 한국여인의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줘 톱스타로 부상했다. 오영진의 희극 ‘맹진사댁 경사’를 영화화 한 ‘시집가는 날’은 신분제도의 벽이 높았던 봉건시대에 맹진사가 세도가 집안 아들에게 딸을 시집보내는데 신랑이 절름발이라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딸 대신 몸종인 조미령을 보내 몸종이 신데렐라가 된 희극으로 한국영화사상 최초의 해외영화제 출품작이다. 도쿄에서 열린 제 4회 아시아영화제에서 특별희극상을 받았고, 베를린과 시드니영화제에도 출품했다.

스타덤에 올라선 조미령은 이어서

았다는 것이다. 공예사 대표는 현지에 주최한 결과 최씨의 백화점 경영은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조미령은 남편과 함께 사기죄로 고소된 와중에 서울가정법원에 최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씨가 조미령의 집을 3백만원에 팔고 전처 소생 남매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렸다. 조미령은 이혼에 승소했지만 1996년 최씨가 있는 하와이로 가서 버스 휴게소에서 기념품가게를 운영했다. 최씨와의 사이에 딸이 한 명 있었고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 다시 최씨가 있는 하와이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미령은 2022년 96세로 하와이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는 대중들의 꿈의 분신이지만 아름다운 허상이기도 하다.☞

김 화 (본회 이사·편집위원)

트럼프 관세폭탄...한국車·철강 '발등의 불'

상호관세 부과로 교역국 압박...세계 각국 대응책 고심

경제 포커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교역 대상국에 연일 '관세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현지시간) 교역국에 '예외 없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수준만큼의 관세를 상대국 제품에도 똑같이 부과하겠다는 의도다.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란 두개 이상의 국가가 상호 합의하에 서로에게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의 법칙'을 보는 듯하다. 미국은 특정 산업과 품목에 국한하지 않고 환율정책, 규제, 조세 체계 등 비관세 장벽을 포함, 4월1일까지 면밀히 검토한 뒤 중순 이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첫 부과 대상국은 미국의 최대 교역국들(1~3위)이다. 최대 라이벌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인접국 캐나다와 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각각 25% 관세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물론 대미 8위 흑자국인 한국도 관세폭탄의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대통령 각서 서명 후 "나는 우리에게 부과되는 관세 이상도 이하도 부과하지 않겠다"며 "각국은 흑역 면제나 예외를 인정받을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 백악관은 유럽의 자동차, 브라질 에탄올, 인도 오토바이 등을 콕 집어서 불공정 사례로 제시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관세보다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 높은 관세를 붙여 결과적으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촉발케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특히 유럽 국가들이 미국 정보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디지털세와 안전·환경·품질 기준 등을 담은 자동차 인증제도 등을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지목했다. 당초 상호관세는 발표 당일(2월13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예상을 깨고 한 달 반 간 유예됐다. 이는 모든 무역 상대국의 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세 및 비관세 장벽을 검토한 뒤 개별 협상을 통해 '그들이 하는 것을 봐서' 관세 면제나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속셈으로 읽혀진다.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이 가장 큰 타격

미국이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자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등에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섹터는 자동

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그동안 한·미 FTA 규정에 따라 관세를 물지 않았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품목 1위이고, 수출 품목 2위인 반도체의 3배에 달한다.

국내 철강 업계도 자동차 업계 못지않게 비상이 걸렸다. 미국은 한국 철강 전체 수출량의 9.8%(3위)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한 수출 무대다. 중

산업에도 번지고 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은 글로벌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어느 정도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해도 국내 기업이 입을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반도체는 대부분 중국이나 베트남을 거쳐 조립·가공된 뒤 미국 등지로 수출되는 구조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직접 수출한 메모리 반도체는 약 4483억원 상당으로, 전체 메모리 반도체 수출량(105조8041억원)의 0.4%에 불과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의지와 능력이 필요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리더십 공백 상태가 계속돼 답답하다 못해 참담하다. 무역전쟁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조차 없으며,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

인도, 미국산 석유 곡물 수입으로 트럼프 설득

'트럼프 1기' 통상 압력 방어한 경험 되살려야

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을 기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 미국을 상대로 약 50조원의 흑자를 올리고 있는 한국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상무부의 승용차 및 경량 트럭 신차 수출입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153만5616대(366억 달러, 약 52조8000억원 상당)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산 자동차의 대 한국 수출은 4만7190대(21억 달러, 약 3조원)에 불과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만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약 50조 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있어 동맹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

국산 저가 철강재 범람,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업황이 불황인데 대미 수출길마저 막히게 돼 철강 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한국의 철강업계는 지난해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4%와 60.6%가 감소하는 등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관세 폭탄까지 맞아 2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한국은 협상을 통해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383만)의 70%(263만) 수준으로 묶는 쿼터제로 관세를 피해 갔으나, 이번엔 더 강력하게 돌아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벼랑 끝에 선 형국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붙인 관세 전쟁의 불씨는 반도체

난해 말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총 557억 달러(약 81조원)로 '톱 10 국가' 중 8위에 랭크돼 있다. 때문에 미국은 '매의 눈'으로 한국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이에 여·야·정, 그리고 재계가 모두 나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우리는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의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미국의 통상 압력을 슬기롭게 방어한 경험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맞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때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려는 의지와 능력이다. ☞

조희곤(본지 편집위원)

새해 벽두, 가요계 큰별 둘이 졌다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 한명숙 - ‘해뜰 날’ 송대관 타계



〈3〉

새해 벽두, 우리에게 위안의 노래를 불러주던 큰 별 둘이 졌다. 1961년 5·16 군사혁명의 주체 박정희 소장을 노래했다던 소문의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 한명숙(향년 90세)이 지난 1월 22일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했다. 그리고 1975년 고난의 시대에 희망을 불러줬던 ‘해뜰 날’의 송대관(향년 79세)이 지난 2월 7일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승차한 인생 열차에서 내렸다.

한명숙은 1935년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태어났다. 6·25때 아버지를 찾아 어머니와 월남해 16세부터 극단의 무대에 섰다. 미 8군 쇼의 가수로 활동하던 1961년 ‘하숙생’의 최희준 소개로 작곡가 손석우를 만나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로 한 시대를 강타했다. 미성 가수의 트로트 일색이던 가요계에 팝송 스타일의 허스키 보이스 한명숙의 등장은 가요사적으로 개성시대가 막을 올리고 폭을 넓힌 기념비적인 일이었다.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는 영화(엄신호 감독)로도 만들어져 한명숙이 당대의 엄앵란·신성일과 함께 주연을 맡아 10만 관객을 동원했다. ‘눈이 나리는데’ ‘우리 마을’ ‘그리운 얼굴’ ‘센티멘털 기타’ ‘사랑의 송가’ 등 300여 곡을 남겼다. 상송 가수 이베트 지로, 하마무라 미치코 등 일본 가수들까지도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의 한국어 음반을 낼 정도였으며 동남아에서도 인기였다.

하지만 그녀의 삶 또한 파란만장했다. 필자는 1980년대 인기의 뒤안길에서 소식이 궁금한 스타들을 취재한 ‘갈채(喝采)는 끝이 없이...’라는 기획 기사를 일간스포츠에 연재했다. 권혜경, 나애심, 백설희, 엄앵란, 김의향, 최지희, 김진규, 남궁원, 문정숙, 박춘석, 현인 등 그리운 스타들의 이야기였다. 1983년 7월 27일 신문에 실었던 한명숙 기사의 스크랩을 찾았다. 그때 한명숙이 말한 삶의 편린을 돌아본다. “아시겠지만 1970년~71년이 너무 힘들었어요. 트럼펫 연주자였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뜨고 몇 달 사이로 어머니 아버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 충격으로 3년 동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노래도 못하고 전화도 못 받았어요. 그동안 혼자 키운 3남매의 재미에 사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큰딸은 자유당 시절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성모씨의 손자며느리로 미국 LA에서 살아요.”

그 때 한명숙의 나이 49세. 한때 딸과 살기도 했으나 두 아들을 못 잊어 귀국했으며 큰아들을 병으로 잃고 말년엔 휠체어를 타고 어려운 생활을 했다.



한명숙



송대관

1985년 필자가 미국 취재를 갔을 때 미주 한국일보의 기사를 보고 LA의 호텔 로비로 찾아왔다. 시간이 안 돼 차 한 잔도 못 하고 헤어진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이런 에피소드도 얘기했다. “1961년 3월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의 레코드를 내고 자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됐어요. 그리고 두 달 뒤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는데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가 혁명 주체 박정희 소장의 노래라는 소문이 났어요. ‘노오란 샤쓰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 생김...’

신대성 작곡의 ‘해뜰 날’로 그해 방송사들의 연말 가요상의 가수왕을 휩쓸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쟁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송대관의 꿈이 쟁하고 해 뜨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1980년 송대관은 미국 워싱턴에 살고 있는 처형의 초청으로 가족 이민을 갔다. 1982년 필자는 미국 취재 중 그의 집에 갔었다. 부인 이정심 씨와 4세, 2세의 아들이 반겼다. 힘들었지만 이제 부인이 다운타운에서 슈퍼마켓을 하며 안정을 찾

‘노오란 샤쓰...’ 박정희 소장 노래란 소문 나기도 ‘해뜰날’은 힘든 시대에 대중에 희망을 준 노래 반세기 지나도 변함없는 정치현실은 안타까워

타이밍이 절묘했어. 또 ‘우리 마을’이 히트하니까 이젠 새마을 노래라고 해요. 곤혹스러웠어요. 물론 모두 루머였어요.” ‘루머’, 요즘도 넘쳐나는 단어다. 누가, 어느 말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비빔밥이 된 혼돈의 시대다. 64년이 흘러도 별로 변한 것 없는 우리 사회 정치의 현실이다. 한명숙은 상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상들이 말년의 불우한 처지로 퇴색해 보였다. 공로가 큰 회원들에게 음악 저작권협회 등의 단체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자신을 알고 인생을 알고 행동하는 정치, 사회가 되었으면...

송대관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노래하고 힘든 시대에 희망을 노래한 가수였다.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전북 정읍에서 상경해 고생 끝에 1967년 ‘인정 많은 아저씨’로 데뷔했으나 무명 가수의 설움을 겪었다. 1972년 자신의 얘기를 직접 작사한 ‘세월이 약이겠지요’로 이름을 알리고 1975년 송대관 작사,

있다고 했다. 그리고 1988년 송대관은 혼자 귀국해 ‘혼자랍니다’로 컴백했다. ‘정 때문에’ ‘차표 한 장’ ‘인생은 생방송’ ‘네 박자’ ‘유행가’ 등을 연타하며 다시 정상을 되찾았다.

그러나 2015년 부인이 개발지의 땅 6만5천 평을 대출받아 산 160억원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집까지 경매되는 시련이 왔다. “인생이 평지인 줄만 알았는데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대요”했던 송대관의 말에 가슴이 찡했다. 그를 가까이 알면 서도 무심했던 느낌을 이 글을 쓰면서야 새롭게 알았다. “...사랑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이별도 있네/ 한 구절 한고비 꺾어 넘을 때 우리네 사연을 담는/ 울고 웃는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 네 박자 쿵 짹” 그는 인생을 알고 자신을 알고 노래했던 사람이다. 한명숙도 송대관도 이제 침묵의 노래를 남기고 떠났다. 자신을 알고 인생을 알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정치, 사회가 되기를 나부터 추스르고 노력해야 할 오늘이다. ☞

신대남(본회 회우·전 일간스포츠 편집국장)

회우 광장

윤석열은 이재명이 쳐놓은 덫에 걸렸다

대통령 성격 역이용... '계엄파동' 유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으로 온 나라가 뒤 흔들리고 혼란에 빠져들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심리전에 말려 움짱달짝하지 못하는 덫에 걸려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수의 당으로 시간만 가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휘방 놓았다. 대통령 취임 후 3년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다. 예산을 대폭 깎아 나라살림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대표 이재명을 수사했다고 해서 검찰 간부를 세 명이나 탄핵한 것도 부족해 유례없이 국무총리, 감사원장까지 탄핵했다.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 등 지금까지 자기들 입맛에 들지 않는다고 무려 29번이나 탄핵을 소추했다.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져 대통령 자리까지 내놓을 지경이 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을 잘 아는 야당 사람들의 고도의 심리전 전략이 작동하지 않았나 싶다. 윤 대통령은 성미가 급한 데다 그런 일을 보고는 참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다. 민주당은 이 점을 역으로 이용했다. 선거 때마다 있어 온 부정선거 논란, 29명을 탄핵해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대통령의 욕하는 성질을 돋운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것이 이번 '12·3계엄'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내려진 계엄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국내적으로는 나라가 완전히 두 동강이 났고 경제는 엉망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고 나라 신인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이 아직 윤 정부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 등 우방국들은 이번 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기술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국내서는 어떨까. 지금까지 바닥에 떨어졌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라를 걱정한 다수의 국민과 우방국의 지지에 뒤늦게 서서히 오르고 있다. 보수 우파가 집결해 뒤늦게 좌파들의 무도한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이



지난 12월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러다가는 나라가 무너지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지켜만 보던 20·30 MZ 세대도 나라를 지켜야겠다고 전면 나섰다. 이들은 영하 10도 아래의 칼 추위에도 한남동에 모여 밤을 새우면서 윤 대통령을 지켰다.

여론조사기관들이 앞다퉈 내놓은 조사결과 중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 3주 전과 비교해 10명 가운데 1명이 탄핵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 혼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급격히 좁혀졌다. 탄핵 직후와 비교하면 여론이 크게 출렁인

또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로 말썽이 일자 이를 밝히기 위해서도 계엄이 필요했다는 것이 윤대통령 쪽 입장이다. 한마디로 이번 계엄은 통치권 행사라는 것이다. 그날도 국회와 선관위에만 계엄군이 나타났을 뿐이고 또 국회 의결에 따라 6시간 반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총 소리 한 번 들리지 않은 계엄이었다는 말이다.

다수당인 야당은 온갖 이유를 갖다 대며 윤 대통령을 하야시켜야 한다고 한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번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 쳐놓은 덫에 걸려든 결과일 뿐이다. 좌파 세력들은 이 때다 싶어 총공세를 펴는 모양새다. 참여연대와 한국대학생 진보연합(대진연)이 곳곳에서 우파의 원이나 정부에 총공세를 펴고 있다. 대진연 대학생들은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군대사관 앞에서 '한덕수 총리를 지지한 미국은 사죄하고, 이재명을 범죄인 취급한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외치며 기습시위를 했다. 또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갔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박대출 의원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강원도 한기호 의원 사무실에도 찾아가 농성했다. 필자는 이들의 행태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사법처리 능력에 '되치기 당한 꼴' 탄핵정국 이후 국민의힘 지지층 재 집결

40~45%를 넘거나 50% 이상 올라 간 것도 있다. 야권 쪽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한결리서치의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도가 42%를 넘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민주당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이재명의 지지율은 32%가 나왔다고 한다.

실제 정당 지지율이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3주 만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12% 포인트 하락한 36%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0% 포인트 오른 34%로 조사됐다. 탄핵 정국 이후 정국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재결집한 효과로 풀이된다.

것이다.

계엄 선포 직후 거의 모든 법률 전문가와 언론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비난했다.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그 중 일부 법조인들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이유는 이렇다. 내란이 되려면 권력을 찬탈하는 등 무엇을 노리고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무엇으로 사육을 채우려 했겠느냐는 것이다. 단지 야당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일마다 시비를 걸고 방해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해서 바로 잡으려 했다는 거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다. 우파와 좌파 양대 진영이 총만 없다 뿐 사실상 내전 상태나 다름없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 끝나고 법원의 이재명 재판이 끝나도 어느 쪽도 승복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정치 평론가들의 견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2년 안에 문재인과 이재명을 사법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화근이 돼 오히려 지금 '되치기를 당한 꼴'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김휴선(본회 회원·전 MBC 보도국 부국장·칼럼리스트)

‘사실’ 찾고 ‘진실’ 밝히는 기자정신 산증인

‘자랑스런 대한연론인’ 인보길 회우

대한연론인회는 2025년 “자랑스런 대한연론인”으로 지난 60년 동안 현역 기자로 필봉(筆鋒)을 휘둘러 온 인보길 회우를 선정, 발표했다. 인 회우는 1965년 2월 조선일보에 입사해 현재 뉴데일리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언론 현장을 떠난 적이 없다. 본지 ‘대한연론’에도 <국부 이승만>을 장기 연재하는 등 미수(米壽)를 눈앞에 둔 86세의 나이에도 왕성한 집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대기자(大記者)다. 지금도 그에게는 ‘사실’을 찾고 ‘진실’을 밝히는 기자정신이 펄펄 살아 움직인다. 역사 속에 묻혀 있던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 발자취와 건국정신을 부활시키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 대한연론 유튜브 방송인 KjtV 다큐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바로알기” 프로에 직접 출연하는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언론에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는 기자정신의 산증인이다. 지금도 후배기자들에게 “치열한 특종 경쟁이 사라졌다” “기자정신을 회복하라”고 일갈한다. (편집자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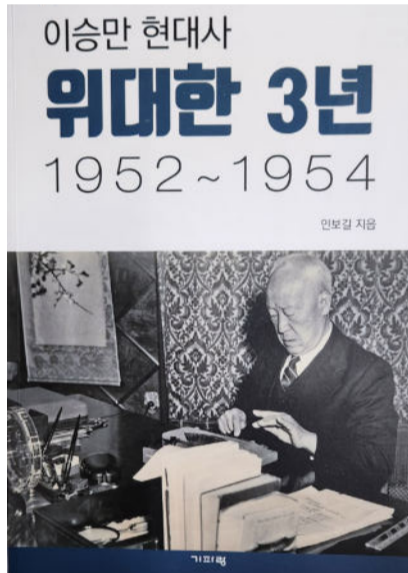
“편집의 귀재” “프런티어 언론인”, 인보길 회장에 늘 따라다니는 닉네임이다. 조선일보에서 편집기자 출신으로 편집국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특이한 기록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올드 미디어(종이신문) 30년, 뉴 미디어(인터넷신문) 30년이라는 전무후무한 경력의 소유자다. 기자생활 30년 경력도 쉽지 않은데 오프라인 30년, 온라인 30년 이라니... 그래서 후배들은 이제 그를 흔쾌히 ‘언론 레전드’라 부르고 존경한다.

그의 기자정신은 촌철살인(寸鐵殺人)에서 묻어 나온다. 편집기자 시절 요즘도 후배 기자들이 정치기사에 즐겨 쓰는 ‘여소야대(與小野大) 등 술한 시대의 키워드를 쏟아냈다. 바로 기사 제목에 시대정신을 촌철살인 한 것이다. 매일 매일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그날 그날 흐름을 꿰뚫는 ‘한마디’를 건져 올리는 것은 피말리는 작업이다. 번득이는 감각과 언어의 예술이 만나지 않고서는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없다.

인 기자는 1995년 30년의 신문 편집국을 떠나 한국 최초의 인터넷 신문사 ‘디지털 조선일보’를 창설한다.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미디어 광장을 넓힌 것이다. 가히 미디어 대혁명이라고 할만하다.

한국 언론사에 길이 남을 미담의 온라인 미디어 광장을 개척한 인 회장에게 ‘프런티어 언론인’이라는 닉네임이 붙은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다가 인 기자는 조선일보를 떠나 2009년 지금의 뉴데일리로 자리를 옮긴다. 본격적인 독립된 인터넷 신문에 도전한 것이다. 뉴데일리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인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통일을 사시(社是)로 내 걸고 살아 남기 어렵다는 인터



대한민국 건국전쟁과 6·25 전쟁 전후 정치파동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역사적 진실을 밝힌 저서 “이승만 현대사”.



그는 인터넷 신문 뉴데일리로 자리를 옮긴 후 2010년부터 ‘이승만 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고, 이승만 건국대

3년” 등 저서를 통해 거인 이승만의 역사를 꿰뚫는 통찰력과 독립정신·건국정신·혁명정신을 재조명하는데

‘편집의 귀재’ ‘프런티어 언론인’ 닉네임 오프라인 30년-온라인 30년 평생기자 ‘이승만 포럼’ 통해 건국 대통령 재조명

넷신문 시장을 계속 성공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인보길기자 하면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8·15 광복과 6·25 전쟁을 전후해서 사회주의 세력과 미국에 의해, 4·19 전후해서는 좌파와 운동권 세력에 의해 왜곡된 역사교육의 최대 희생양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 이승만의 참모습을 바로 알린 것은 인보길 기자의 공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이 노력은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확실하다.

통령기념사업회 상임고문과 이승만 기념관 건립위원으로 사회적 활동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공훈과 정신을 후손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그가 이승만 포럼을 통해 ‘이승만 다시 보기 운동’을 과감하게 펼친 것은 좌파들이 촉발한 ‘역사전쟁’에서 기인했다. 좌파 진영에서 만든 다큐 “백년전쟁- 이승만의 두 얼굴” 내용에 왜곡되거나 허위사실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폭로해 좌편향된 역사학계에 경종을 울렸다. 나아가 “이승만 다시보기” “이승만 현대사-위대한

진력하고 있다.

그는 갈 데 없는 천생 기자다. 지금도 “날마다 쏟아지는 뉴스와 정보를 ‘씹어먹는’ 재미에 산다”고 말한다. 팔순 나이에 오늘도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는 건강과 사명에 대해 “73세에 나라를 세우고 80세에 한·미동맹을 이룩한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하면 아직 멀었다”고 말할 정도다. 여느 청년 못지않게 왕성한 체력을 자랑하며 일을 놓지 않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을 닮아서 일까? 100세까지도 현역 기자로 활동할 기세다.☞

(이규진 총괄부회장)

계엄·탄핵정국 ‘가짜뉴스’ 검증없이 인용

대한언론 공정보도심의위원회 8차 회의



◆**전의식 위원** :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월15일 자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에 대한 찬반 여론을 보도하면서 탄핵과 체포 반대 여론이 상당한데도 탄핵찬성 565초, 탄핵반대 150초를 배정해 심히 편파적으로 보도했다. 또 <뉴스데스크>는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리고 있는 체포 찬성집회 현장을 직접 연결하고 전국에서도 체포를 찬성하고 있다면서 부산, 춘천, 울산, 청주, 제주 등지에서 시민 10명의 인터뷰를 방송한 후,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불법 계엄에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7명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이같이 <뉴스데스크>는 전국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및 체포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처럼 편파 보도해 시민단체로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되었다.

▲MBC 라디오 시사프로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지난해 말 12월31일 방송에서 윤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 제14조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되었다. 이날 방송에서 황운하 의원이 “(비상계엄선포가) 내란이라는데 대해서는 어느 학자도 의문의 여지없이 다 이야기하니 내란죄가 맞기는 맞다”고 한 발언을 확인 없이 그대로 내 보내 객관성을 심각하게 결여했다. 실제 우리나라 저명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와 이인호 중앙대 교수 등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옥식 위원** : 윤석열 대통령 계엄·탄핵 정국에서 일부 TV방송과 온·오프라인 신문, SNS, 유튜브를 중심으로 나돌았던 가짜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위기에 몰리자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점검비행이라고 설명)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살 명령이 내려졌고 실제 체포조와 사살조가

대한언론인회 공정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오전 대한언론인회 회의실에서 제8차 심의 회의를 열고 신문·방송 보도 내용 중 일부를 불공정 보도로 선

정해 그 내용을 ‘대한언론’ 3월호에 신기로 의결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성됐다. ▲계엄선포 직후 서울 시내에는 군 탱크와 장갑차가 진입했고 밤 11시부터는 통금이 실시됐다. ▲윤 대통령이 무인기 등을 활용한 북한과 무력 충돌 유발로 2차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변론 참석 후 뇌 관련 응급상황이 발생해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실제는 안과 치료) ▲광종근 특전사

미를 유발하고 속도경쟁까지 한 16개 언론사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제재를 받았다. 특히 아시아경제와 대경일보는 제목에서 유서 표현을 썼을 뿐만 아니라 숨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아시아경제가 ‘〈단독〉배우 송재립 39세 나이로 사망, A4용지 2장 분량 유서 발견’ 기사에서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

호처의 반발은 큰 충돌 없이 제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경호3부장은 1월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시설 위치 등 내부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 외 여러 경로를 통해 기밀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경호3부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주요간부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조희곤 위원** :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AI 모델 ‘R1’이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내 언론들은 지나치게 경계감만 표출한 채 향후 국내 AI산업의 현실과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대체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AI 반도체 업계에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올바른 언론의 역할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MBC ‘뉴스데스크’ 탄핵찬반여론 편파적 보도 ‘연예인 자살’ 흥미 유발-속보경쟁 ‘주의’ 중국 AI ‘딥시크’ 공포감 조성, 대안제시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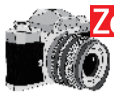
령관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국회에 출동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국회 증언에서 정면 부인해 판사령관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 ▲707부대가 국회에 출동하기 위해 실탄과 공포탄, 테이저건 카트리지 등 약 6000여발의 탄약을 반출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테이저건 탄은 한발도 가져가지 않았고, 나머지는 자체 사격 측정을 위해 당일 아침에 불출된 탄약 현황”이라고 확인) ▲윤 대통령이 모범 장병 격려 초청 골프대회를 가졌는데 이는 계엄선포를 위한 사전 모의 목적이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MBC 초대석 발언) 등이다. 이런 가짜뉴스의 진원지는 거의 야권과 시민단체, 온·오프 라인을 포함한 일부 편향된 언론매체들이다.

◆**김 화 위원** : ▲배우 송재립의 자살경위를 구체적으로 보도하면서 흥

사하자, 대경일보는 ‘배우 송재립 숨진 채 발견, 유서 발견돼’ 제목의 기사에서 아시아경제 내용을 그대로 인용 보도했다. 송재립의 숨진 경위는 불과 15분가량 노출됐지만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블로그, 카페 등으로 급속히 번져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언론은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도경쟁의 수단으로 자살사건을 다루서는 안되며, 자살의 방법이나 수단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도 안 된다. 특히 연예인의 경우 베르테르 효과(모방범죄)를 감안해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mbc는 지난 1월 12일 “오늘 경호처 부장단 회의에서 경호3부장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퇴를 요구한 3부장은 항명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대기발령 조치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성훈, 이광우, 김신(가족부장) 세 사람의 신변확보나 사퇴 등 분리조치가 이뤄지면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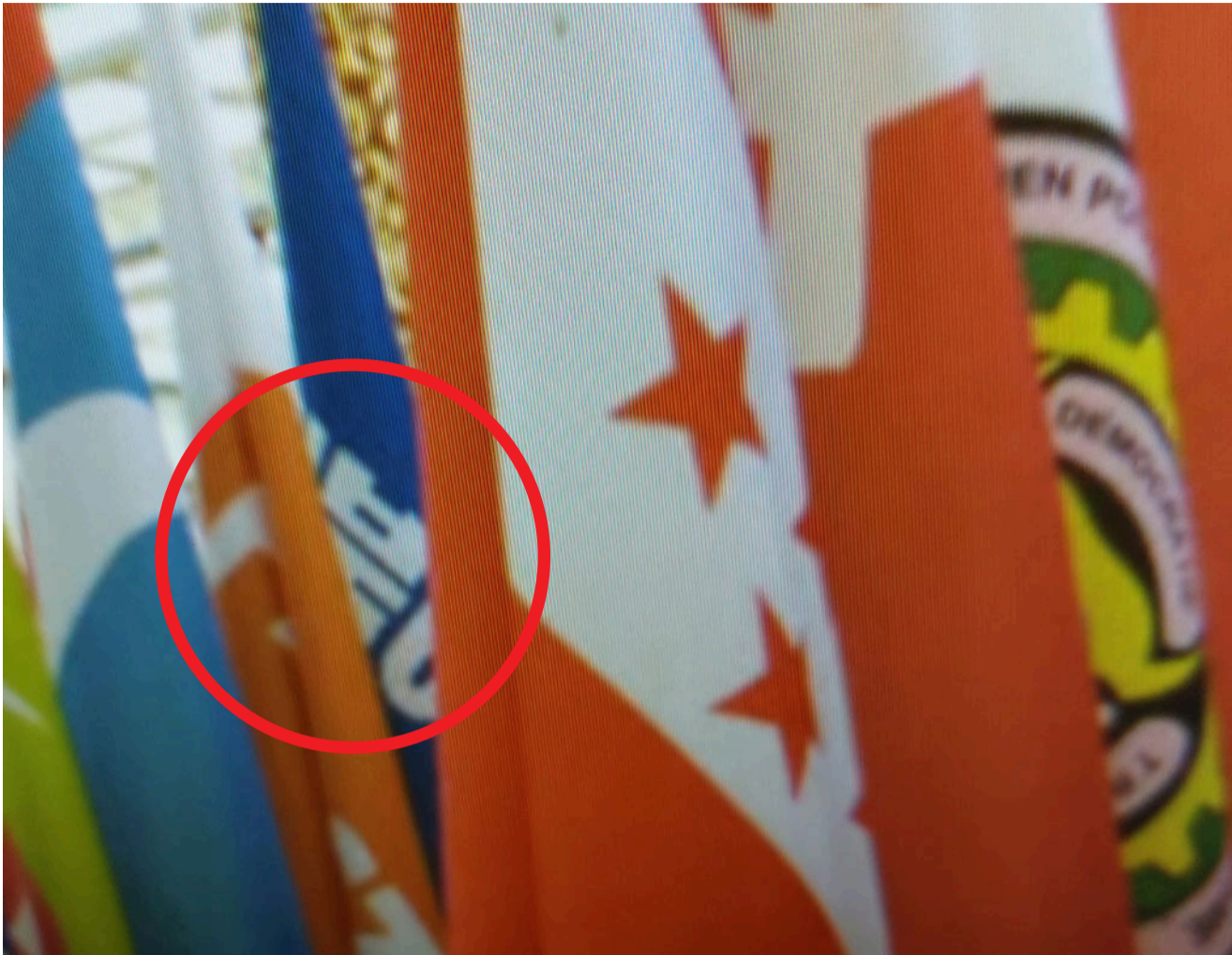
요즘 국내 언론들은 딥시크 사태 이후 한국 최대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에 연일 지나치게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 이들 종목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AI 학계와 금융투자업계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딥시크는 모든 틀을 망가뜨리는 ‘종결자’라기 보다는 현 시장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혁신 촉매제’에 가까워 보인다. 딥시크 모델이 오픈 AI의 ‘챗GPT’와 구글의 ‘제미니’ 등 종전 모델들을 몽땅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또 딥시크란 ‘메기’의 등장으로 AI산업의 효율이 높아지면서 장기적으로는 AI 인프라 수요가 더 커질 것이라 예측도 가능하다. 따라서 미·중 간 ‘딥시크 전쟁’ 속에 지나친 위기론 보도 보다는 딥시크 사태를 냉정히 직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의 태도가 아쉽다.㉞

〈정리 : 이규진 총괄부회장〉



Zoom in

공산당 정상회의장에 펄럭인 더불어민주당 당기(黨旗)



2021년 7월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 정상 회의에 나부낀 세계 각국 공산당기와 사회주의 정당 깃발 사이에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깃발(사진 차강석 제공)이 세워져 있어 조금은 생뚱맞다.

이 정상회의는 세계 160여 국가에 포진한 공산당과 사회주의 정당 500여 곳의 대표 1만여 명이 중국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당시 코로나19 탓에 일부 인사들만 회의장을 찾았고 나머지는 화상 회의에 참여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당기가 그곳에 세워지게 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이재명대표가 각종 보수정책을 쏟아내며 우클릭,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것과 오버랩되어 씩씩하기만 하다.

이향숙 (본회 이사)

명품인생

누가 역사를 가지고 노는가

미처 보지 못한 우리 TV드라마의 한 장면이다. 때는 임진왜란. 긴 칼 옆에 찬 선조대왕이 거북선을 타고 일본전함들을 박살내고 있다. 이순신장군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드라마가 있다면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역사의 왜곡일까. 패러디일까.

사람들은 왜 역사를 기록하는가. 우문 같지만 요즘같이 역사를 놓고 시끌벅적 할 때면 이렇게라도 한번 짚 물어보고 싶어진다. 일상을 일상으로 지내다 보면 역사를 논할 일이 별로 없건만 요즘처럼 역사에 민감한 때도 일찍이 없었던 듯하다. 사람들은 요즘 TV뉴스가 온통 사극 같은 탄핵경쟁으로 불을 뿜는데 대해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다양한 의견을 분출하고 있다. 그것은 뉴스가 아니라 마치 정권 탈취의 잔혹한 역사극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드라마 중의 한 예를 들어보자. '연개소문' 과 '주몽'이 역사 논쟁에 휩싸이면서 고구려사가 어느 때보다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도대체 이들 TV방송의 사극은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었던 말인가.

SBS 대하사극 '연개소문'의 한 부분이다. 연개소문이 안시성에서 당태종의 30만 대군을 만나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문제가 된 부분은 연개소문이 안시성에서 직접 전투를 이끌었다는 내용. 역사에는 연개소문이 안시성에 있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안시성 싸움은 원래 양만춘이 이끌어 승리한 것으로 알려져

헌법재판소의 史劇 닮은 탄핵드라마

있고 또 다른 소설에서도 연개소문은 평양성에서 지휘만 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연개소문이 이끈 승리는 안시성이 아니라 662년 사수(蛇水) 대첩이다.

또 드라마에서 연개소문이 김유신 집으로 보내졌지만 다른 소설에서는 은둔자인 스승 마휴가 버려진 3세짜리 아이를 키운 것으로 그리고 있다. 이처럼 드라마나 소설에서 설정이 제각각인 것은 극 전개를 위해 작가가 자신의 상상력으로 제 나름의 살을 붙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지만 이 또한 정

설이라는 근거도 확실치 않다. '과연 당시의 역사는 그랬을까?' 드라마에서 전개되는 주제를 역사책의 서술과 비교해 보면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요즘 헌법재판소를 주시하는 국민들은 마치 역사 드라마를 시청하듯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 쪽은 울분을, 다른 쪽은

울 면치 못한다. 일단은 허구에도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최근 한국사 강의계의 두 거물, 전한길과 황현필이 정치적 이슈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다. 황현필은 전한길의 최근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단순한 역사 강의를 넘어 정치적 대결로 확대된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최근 행보를 보면 과연 그가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황현필은 과거 한국전쟁은 미국이 일으켰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며 전한길의 대립자로 그 또한 역사전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그는 지금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한 쪽이 옳으면 다른 쪽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역사는 역사로 깰 수밖에 없다. 역사 왜곡은 분명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역사는 미래이기 때문이다. 누가 명품인생의 승자가 될 것인가.☞

강이산/극작가

회우 광장

선조들의 숨결 가슴에 품고...

외손자와 3박4일 전국 宗家·古宅 탐방기



조덕연
본회 자문위원
전 서울신문 부국장

손자가 고등학교 1학년 때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흥준이가 요즘 학교생활 문제와 사춘기가 겹쳐서인지 “나 이제 학교 안 갈래” 하며 책가방을 팽개치고 나간다고 했다. “그래 그렇다면 애비한테 보내 봐” 했다.

어디를 가야 하나?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 될 만한 곳이라야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 일단 명문 고택이 좋을 것 같아서 대략 일정을 잡아 놓았다. 얼마 후 녀석이 왔다. “할아버지 왜 오랬어” 한다. “나하고 여행이나 갈까” 라고 제안했더니 좋아한다.

내 차로 3박4일 일정을 잡아 떠났다. 나는 주로 국도 따라 다니는데 가는 도중에 훈계 훈육하듯 말을 거니 “아 짜증나. 나 안 갈래. 내려줘” 한다. 아차 이게 아니구나 싶어 농담조로 말을 바꾸었다.

나는 녀석이 제멋대로여서 성씨가 권가인지라 곤대로 라고 부른다. “대로가 뭐야” 하기에 “대로란 모든게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잘 될 것이라 뜻이지” 라고 말하고 첫 번째 찾은 곳이 충남 예산에 있는 추사 김정희 고택이었다. 고택을 둘러보던 중 눈에 띄는 추사선생의 〈水滴穿石〉을 가리키니 “저게 무슨 뜻이야” 한다. “아 저 글씨는 추사가 직접 쓴 글씨인데 물방울(낙수물)이 떨어져 바위를 뚫는다는 뜻이니 새겨 두면 좋지” 하자 “왜 이런 곳을 다녀” 한다. 아마 유원지나 가나 기대했던 것 같다. 다음에 도착한 곳이 광주 광산면에 있는 기대승 선생의 종가 너부실마을 월봉서원이다. 서원에 들어서니 마침 청소년을 위한 여름학교 즉 하강을 하고 있는 참이었다. 나는 미리 들어가서 원장님에게 “손자를 데리고 여행하는 중이니 좋은 말씀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하고 손자를 인사시켰다. 원장님이 손수 차를 들고 와서 차를 따라 주니 벌떡 일어나 정중히 쫓그리고

앉는다. 제멋대로인 녀석이 겁을 먹었나, 무언가 길이 들어 먹히는가 생각이 들었다.

한여름이다 보니 하루에 담양까지 와서 여장을 푸는데 여관방에 들어가기 전에 주인에게 손자하고 같이 왔으니 TV는 아랫한 애로 방영물은 차단해 달라고 부탁하고 들어갔다. 손자 녀석에게 오늘의 느낌은 묻지도 않고 다녀볼만했느냐고 묻기만 했다. 한여름 건설현장이 보이기에 데리고 갔다. 땀에 젖어 일하는 노동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저게 삶의 현장이다. “현장을 본 생각이 어떠니” 하고 물으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돌아 오는 길에 은행이 보여 들어갔다. 시원한 은행과 현장을 본 느낌은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저 비교해 보라는 뜻이지.

이곳 담양 특식 대동밥으로 시장기를 채우고 임진왜란 때 아들까지 데리고 참전해 부자가 다 전사한 제봉고경명 의병장 종택 종부를 만났다. 이곳 창평 삼지내는 고경명 선생의 후손으로 구한말 규장각을 관리하던 직각 벼슬을 한 고직각이 창평의숙이라는 교육기관을 세워 상월정에서 현대 교육을 받아 해방후 건국정부에 기여한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인촌 김성수 등등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한 고장이다.

이제 경상도에 들어섰다. 거창 초계정씨 동계 정은 선생의 고택에서 광해군 때 죽음을 무릅쓰고 써 올린 상소문으로 유명한 종가 종손의 얘기를 듣고 나오려는데 흑여 대구 회원 문씨 문중에 가면 안부를 전해 달란다. 아직도 종가끼리의 훈맥을 통해 인맥을 이어가는구나 싶었다.

대구 달성 회원 인흥 마을을 들어서니 서원이 보였다. 유건을 쓴 노인이 대청에 앉아 있어 인사를 나누고 나니 손자를 데리고 가서 영어로 쓰인 안내판을 일본식 발음으로 읽어가며 내용을 알려주었는데 한동안 쫓그리고 앉아있는 녀석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 주었는지 물으니 대단한 할아버지라고 한다. 그 노인이 인흥서원 유학자 훈장이다.

그 인흥마을 산 밑으로 남평 문씨 수봉 문영박의 고택이 자리 잡았는데 고서를 거의 1만여권이나 소장하고



인흥서원 전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손자.

있다. 바로 인수문고 만권당으로 연구 학자들이 찾는 곳이다. 바로 고택 옆으로 터를 잡아 장손을 중심으로 차장손들의 한옥이 9채가 있다.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한 곳밖에 없는 마을이다. 전 서울신문 사장을 역임한 작고하신 문태갑 사장은 장손이 아니라서 들어가지 못하고 인근 아파트에 기거한다고 한다.

둘러둘러 독립운동가 이상용선생생가인 임청각에 가보니 관리인만 살고 있어 서둘러 보고나서 조선시대 인물을 많이 냈다는 안동 의성김씨 내암마을을 찾았다. 〈五龍之家〉라 불리는 다섯 아들들을 모두 등과시킨 명문가다. 청계 김진 아들 모두가 퇴계 문하생인데 조선 선조 때 활약한 학봉 김성일로 더 알려져 있다. 도산 서원은 너무 알려져 대충 지나쳐 영양 일월면 한양 조씨 집성촌 호은 종택으로 갔다. 재물, 사람, 학문을 남에게 빌리지 않는다는 삼불차 주실마을. 이 작은 마을이 박사만 열다섯명이나 배출한 곳이란다.

동탁 조지훈 시인의 시비가 길에 늘 어선 시비 마을로도 유명하다. 일정을 거의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상주 낙동면 양진당을 빼 놓을수 없어 찾아갔다. 풍양조씨 집성촌으로 국가 보물로 지정된 양진당에서 매년 여름방학 때면 문중 청소년을 수련하는 하강이 열리는데 어제 막 끝났으며 분주하다. 필자도 풍양조가라 한참 이야기를 하다 데리고 온 게 친손자냐고 묻기에 거짓말은 할 수가 없어 외손

이달의 시

겨울 공화국

기후변화에도
겨울은 더욱 깊어지고
매서운 바람이 귀를 자르는
혹한의 광장
삼복더위다

두꺼운 외투를 갑옷으로 두르고
싸늘해진 가슴에
적개심 불을 피우며
목소리를 뜨겁게 데운다

같은 하늘 아래
광장은
좌우로 가리마 타고
전사로 돌변한 장삼이사도
혀에 면도칼 달고
기관총을 난사한다

함성이 사라진 광장은
날개 찢어진
민주주의가
외롭게 신음하고 있다

김 화
시인, 본지 편집위원

자라고 하니 조문에 윈 타성을 데리고 왔냐는 눈빛이다.

아~ 예전에 내가 어른들한테 얻어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사돈끼리 자기 손자를 데리고 와서 대청에서 술잔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데 손자끼리 싸움이 붙어 내려다 보니 자기 손자가 외손자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보자 “어찌 내 친손자가...” 하며 내려가서 뒤엎어 놓았다는 일화를 생각하며 3박4일의 일정을 끝냈다. 오는 길에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 다음에 다시 한번 여행을 오자”고 해 가슴이 뿌듯했다.

K고교와 U대학을 나와 어엿한 회사직원으로 30줄에 들어선 녀석이 아직도 전화하면 “할아버지 왜 전화했어”한다. “요즘 2030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다던데 너는” 하면 “그건 왜 물어” 한다. 민주당 입법폭주가 젊은 층들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나? 지금도 손자의 반토막 말이 더 정감스럽다.☞

“천혜의 비경이 살아 숨쉰다”

가고 싶은 곳 거문도·백도·여수 2박3일 탐방기



최귀조
본회 감사

“남쪽 나라는 벌써 봄이다.”

겨울도 봄도 아닌 영겨주춤한 날씨 속 지난 1월 소한을 맞는 날, 다도해는 자운영(紫雲英) 빛깔로 뿌연다. 이날 오후 나는 여수항을 떠난 쾌속정에 몸을 맡긴 채 오랫동안 버르던 거문도 탐방, 미지의 땅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설레었다. 배가 갈매빛 바다를 가르자 가히 천혜의 비경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거문도까지는 114.7km 뱃길. 한려수도 위로 수놓은 무수한 섬들이 구슬을 엮듯 뱃머리를 스쳐갔다. 작은 섬은 큰 섬에 업히고 큰 섬은 작은 섬을 보듬은 채 자그마치 317개의 섬들이 유리수정의 청정수역에 대자연의 파노라마를 펼쳐니 이곳이 곧 다도해 해상공원이다.

내가 가야 할 거문도, 백도는 비경들이 갈무리한 역사와 문화의 현장이다. 환상의 등산 코스까지 갖추고 나를 부르는 것이다. 약 2시간여의 항해 끝에 오후 4시 넘어 거문도에 도착했다. 거문도는 인구 2500여 명으로 여수시에 속한다. 본도인 고도와 서도를 삼호교로 연결하여 하나로 묶고 동편에 동도가 자리해서 삼호(三湖)를 이루면서 호수 같은 천연의 양항을 형성했다.

또한 거문도는 구한말의 유학자 군은 김유와 같은 거문(巨文)들을 배출했다 해서 ‘거미도’를 ‘거문도’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813년 8월 부동항을 찾아서 남진



백도의 신묘한 절벽.

한 구 러시아 푸티아틴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와 통상을 강요하다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돌아갔고, 1885년에는 중국과의 아편 전쟁에서 발을 뺀 영국의 해밀턴 제독이 이끈 함대가 러시아의 남진을 막아준다는 구실로 상륙하여 약 2년간 거문항을 해밀턴항이라 부르며 무단 점령하기도 했다.

그 후 일제의 강점은 말할나위 없고 대륙침략의 야망을 품은 일제는 거문도에서 만주 대륙까지 연결하는 해저

거문도의 아침은 바다보다도 선착장 어판장이 나를 먼저 깨운다. 어젯밤 먹은 갈치회가 생각난다. 아침 6시 등산길에 올랐다. 거문도에는 환상의 4개 코스가 있다. 나는 그중 가장 쉬운 D코스를 택했다.

삼호대교를 건너서 불탄봉에 올라 신선바위 능선을 거쳐 보로봉에 이르는 매혹적인 코스로 왕복 5km로 약 3시간 걸린다. 등산로 주변은 계절을 거역하는 푸른 숲과 온갖 야생화의

있다. 백도는 한려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다. 여수에서 142km, 거문도에서 28km 바깥에 있으며 이곳에서 남쪽으로 19km 가면 공해상 한·일공동어로 수역이다. 또 백도는 상백도 하백도로 나뉘며 38개의 섬들이 수심 100m의 해저에서 석순처럼 솟아 있는 무인도다. 주봉은 상백도의 등대섬으로 해발 162m. 풍란, 염란, 초종용 등 자생 식물 160종, 매, 흙비둘기 등 조류 29종 포유류 9종이 서식하고 있다. 그리고 하늘을 찌를듯 첨예한 봉우리가 99개로 백도(百島)에서 하나가 모자라 획 하나를 지워서 백도(白島)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명승지 제 7호로 지정된 백도는 생태계 보존을 위해 일반인의 상륙이 금지되어 있다. 또 백도는 자연의 거대한 조형 동물원이다.

고래, 물개, 곰, 코끼리, 봉황새 바위 등 상·하백도의 기암괴석 바위 위에 미래상 바위, 석불바위, 서방바위, 각시바위 등 기이하고 전설적인 형상들이 마치 화석처럼 굳어서 탐방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날 오후 4시 거

거문도엔 동백꽃 터널 1km ‘환상의 길’ ‘명승지 7호’ 백도는 기암괴석의 전시장

케이블을 부설하기도 했다.

나는 서둘러 탐방지인 영국군 묘지를 찾았다. 묘지는 고도 선착장에서 600m쯤 오솔길을 따라가면 나타난다. 양지바른 언덕으로 수려한 안노루섬과 박노루섬이 내려다 보였다. 당시 거문해역에서 숨진 영국군 병사는 10명으로 알려졌는데 그중 3명이 이곳에 묻혀 있다.

경연장이다. 능선에 올라서기 전 나는 1 km나 계속된 생명의 숲 ‘동백터널’ 속에서 진홍의 화관을 밟으면서 탄성을 올렸다.

한 시간쯤 올랐을까. 남해의 수평선이 한눈에 들어온다. 7시 조금 넘어 신선바위 능선 너머로 태양이 떠오른다. 황홀한 해오름이다. 아차바위, 신선바위, 몰광 등대 섬의 기암절벽이 순식간에 핏빛으로 빛났다. 더 오를 곳도 더 갈 곳도 없는 깎아지른 벼랑 끝이다. 계곡을 타고 산야의 울음 소리도 들려왔다.

다음은 이번 여정의 하이라이트인 백도 행이다. 오전 10시 시속 58km의 쾌속 여객선이 백도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다. 동도 앞을 벗어나 소상부도, 대 상부도를 바라보면서 40분이 지날 무렵,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 위에 백도가 마침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백도. 마치 하늘에 떠 있는 신기루처럼 바다 위에 솟아오른 마법의 성처럼 무한대의 타원형 수평선 위에 춤추듯 융틀임하듯 떠 있

문도를 떠나 여수로 향했다. 돌산도 향일암은 이번 탐방길의 대미를 장식하는데 족했다. 2박 3일 여정의 마지막 날인 아침 6시, 돌산대교 450m를 건너니 곧 국내에서 아홉 번째로 큰 섬 돌산도였다. 갓김치로 이름난 채소밭길을 40분이나 달렸다. 불자들의 순례지가 돼버린 향일암은 돌산반도의 남쪽 끝 금오산 정상에 자리하고 있다.

새벽부터 모여든 불자들과 함께 나도 마침내 7시 15분 구름 사이로 용광로와 같이 끓어오르는 해오름을 보았다. 불타의 자비로운 빛이 암자와 그 뒤를 받치는 기암괴석이며 석굴로 이어지는 기이한 미로에까지 고루 스며들었다. 향일암 하신길은 가파르다. 사색에 물든 숲이 펼쳐졌다. 저만치 보이는 어촌포구에 작은 배들이 빼곡히 모여 있다. 드문드문 굴뚝에서 연기까지 피어올라 고즈넉한 남도의 서정이 묻어난다. 해거름 귀경길, 차창 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곧 봄이 오겠지...”



상백도 등대.

연회비 감사합니다

연회비 납부 : <2025. 1. 23~2025. 2. 24>
<괄호 안은 연도, 단위 ; 원>

■ 연회비: 3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계좌 번호 :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회비

이성영(2025) 30,000	이형균(2025) 30,000
송경섭(2025) 30,000	조남조(24~25) 60,000
오경자(2025) 30,000	박문두 (2025) 30,000
이 용 (23~25) 90,000	민경완(2025) 30,000
윤 흥 섭 (2025) 30,000	권 영 국 (2025) 30,000



나동관 회우
1,000,000원



원행스님
440,000원

산악회

3월 21일 장충단 공원에서 시산제

2025년 싱그러운 새봄을 맞이하여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황우연)는 3월 21일(금) 장충단공원에서 시산제를 연다. 산악회는 시산제 후 버스를 타고 오랜 만에 개나리와 벚꽃이 아름다운 남산 정상에 올라 서울 시내를 조망하고 팔각정, 봉수대, 서울 중심표지석, 남산타워를 둘러본 뒤 계단이 없는 완만한 돌레길로 하산한다. 하산길에는 안중근광장·백범광장·한양성곽을 거쳐 남대문시장내 활어회 맛집 '막내회집 본점'(검상창 치면 바로 뜸,3호선 회현역 5번 출구에서 210m) 오찬. 사정상 산행이 어려운 회원은 오찬장소로 바로 오셔도 된다. 평생복 차림이어도 되며 가족동반도 환영.

- 집합일시 : 3월 21일(금) 오전 10시
- 집합장소 :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장충정' 정자
- 시산제 장소 : 장충단공원
- 참가신청 : 최영배 총무(010-2286-0592)
- 오찬시간·장소 : 12:30~13:00 시작. '막내회집'(02-755-5115)

봄내음 맡으며 “홍제폭포 만끽”

시보제, 장석영 회장 등 회원 14명 동행

만보회



대한언론인회 만보회(회장 최귀조)는 지난 2월 18일 정오 서대문구 홍제천 인공 폭포 앞에서 2025년 무사건기를 기원하는 제2회 시보제(始步祭)를 가졌다. 장석영 회장은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며 “만보회 회원 모두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참석 회우는 강두모 김기원 김성남 김윤찬 김조영 박원배 안중우 안흥렬 장석영 장욱 조명동 최귀조 황우연. <글 : 최영배 총무>

회우가 낸 새책

한반도문학 제21집 봄호



<한반도에서 백두까지>를 슬로건으로 내 건 순수문학단체 한반도문학(회장 장석영)의 ‘한반도문학’ 제21집 봄호가 출간됐다. ‘문학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세운 이번 호에는 유자효 목진숙 양재성 및 고승철 등 초대작가 4인의 작품을 비롯 회원 33인의 시와 14편의 수필을 담았다. 또한 한반도문학의 신춘문에 당선작 시 수필 소설부문의 작품 6편과 작가의 당선소감을 실었다. 한편 서두에는 소설가 신상성의 라오스탐방기 ‘동남아 숨은 보석 라오스’를 올려 관심을 끌게 했다.

한반도문학 장석영 회장은 “문학이 언어를 통해 독자의 심금을 맞보게 하기도 하고 미소를 짓게도 하는 마력을 가졌다면서 거기서 독자들은 용기와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와 감동을 받기도 하며 즐거움과 행복을 맛본다”고 문학의 존재이유를 설명했다. 아시아예술출판사 160면 값1만5천원

언론가 소식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 무단 활용 행위 한국신문협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한국신문협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신문·통신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네이버가 자사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 엑스(X) 학습에 뉴스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공정위 제소를 통해 구

체적인 뉴스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언론사와 생성형 인공지능 기업의 공정한 거래 관계 기반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회우동정

박기병 명예회장 천지일보 ‘피플포커스’ 소개



박기병 명예회장이 천지일보 2월 19일자 피플&포커스 난에 소개됐다.

94세 언론인인 박회장은 “편향, 당리당략에 휩쓸린 언론”에 대해 “국민이 우선되는 언론”이 되라고 당부했다.

仁村 金性洙 선생 70주기 추모식



동아일보를 세우고 제2대 부통령을 지낸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 선생의 70주기 추모식이 지난 2월18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고인의 유택 앞에서 거행됐다.

추모식에는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을 비롯한 유족과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추모 묵념에 이어 고인 약력 보고, 추모사, 고인의 육성 듣기, 분향 및 헌화의 순서로 치러졌다.

최맹호 동우회장은 약력 보고에서 “인촌 선생은 독립을 위해 민족교육, 민족산업, 민족언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민의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제도의 확립을 평생의 과업으로 추진했다”고 했다.

월간 대한언론

Korea Journal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석영
- 주 필 이도선
- 총괄부회장·사무총장 이규진
- 편집국장 송창기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kjclub.or.kr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기자의 혼
꺾이지 않습니다



 **한국기자협회**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303호

www.eandex.co.kr

Koplas 2025

국제플라스틱·고무산업전

2025. 3. 11 - 14 / KINTEX

www.koplas.com

K-Mtech 2025

한국 소재·복합재료 및 장비전

2025. 3. 11 - 14 / KINTEX

www.kmtechshow.com

KIMES 2025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

2025. 3. 20 - 23 / COEX

www.kimes.kr

MedicomteK 2025

의료기기 부품 & 소재 기술전

2025. 3. 20 - 23 / COEX

www.medicomtek.com

KOBA 2025

국제방송·미디어·음향·조명전

2025. 5. 20 - 23 / COEX

www.kobashow.com

K-print 2025

KIPES Klabel Kpack
Kdigital print K textile Ksign&ad

2025. 8. 20 - 23 / KINTEX

www.kprint.kr

K-BA++ERY SHOW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

2025. 9. 10 - 12 / KINTEX

www.kbatteryshow.com

KIMES BUSAN 2025

부산 국제의료기기전

2025. 9. 26 - 28 / BEXCO

www.kimesbusan.com

KRS 2025

대한민국전파산업대전

2025. 11. 12 - 14 / COEX

www.krshow.co.kr

‘밝은 미래’를 위한 파트너!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E&EX (주) 한국이앤엑스
KOREA E & EX INC.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2001호 (우. 06164)

Tel. 02-551-0102 E-mail. ex@eandex.co.kr Website. www.eandex.co.kr